



제11장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노호영*·신성철**·노수정***·김다정****·김치운*****

1. 건고추

- 1.1. 최근 수급 동향
- 1.2. 2023년 상반기 전망
- 1.3. 중장기 전망

4. 대파

- 4.1. 최근 수급동향
- 4.2. 2023년 상반기 전망
- 4.3. 중장기 전망

2. 마늘

- 2.1. 최근 수급 동향
- 2.2. 2023년 상반기 전망
- 2.3. 중장기 전망

5. 부록

- 5.1. 2000~2022년
건고추 수급 동향
- 5.2. 2000~2022년
마늘 수급 동향
- 5.3. 2000~2022년
양파 수급 동향
- 5.4. 2000~2022년
대파 수급 동향

3. 양파

- 3.1. 최근 수급동향
- 3.2. 2023년 상반기 전망
- 3.3. 중장기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rhy81@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ssc0729@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nosu303@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wetmu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cu5226@krei.re.kr

요약

1) 2022년 수급 동향

- 2022년 양념채소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영향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하였다. 마늘은 1% 증가하였으나, 건고추, 양파, 대파는 각각 11%, 6%, 20%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면적 감소 및 작황 부진으로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가 전년 대비 각각 21%, 7%, 16%, 7% 감소하였다.
- 2022년 양념채소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마늘과 양파 가격은 생산량 및 저장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보다 높아 정부는 TRQ(마늘, 양파) 및 할당관세 물량(양파)을 도입하였다. 민간수입량도 전년 및 평년보다 증가하였다.

2) 2023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 2023년 양념채소류 재배면적은 마늘이 2022년산 가격이 높아 전년보다 3% 증가하며, 양파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의 경우, 조생양파 면적은 전년산 가격이 낮아 2% 감소하나, 중만생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은 대서종 면적이 전년보다 6% 증가하나, 남도종 마늘이 2% 감소하고, 한지형은 비슷할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상반기 건고추, 마늘, 양파 가격은 2022년산 재고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건고추, 마늘은 2022년 12월 가격과 비슷하고, 양파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양파의 경우, 2023년산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5월부터는 가격 변화가 예상된다. 대파 상반기 가격은 겨울대파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적어, 전년 및 평년보다 높으나, 2022년 12월보다 낮을 전망이다.
- 중장기 양념채소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양파는 증가 추세이나, 건고추, 마늘, 대파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국내 자급률은 양파가 94% 내외, 마늘과 대파가 각각 84%, 88% 내외를 유지하나, 건고추는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40% 내외로 전망된다. 중장기 전망은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1인당 소비량 감소와 향후 원/달러 환율 및 국제 유가, 그리고 실질 GDP,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 등의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1.1. 최근 수급 동향

1.1.1. 생산 동향

- 2022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1.2%, 10.1% 적은 6만 2,916톤 내외였다.
- 2022년산 재배면적은 2021년산 생산량 증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각각 10.8%, 2.5% 감소한 2만 9,770ha였다.
 - 과거 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재배면적은 7만 4,471ha였으나, 2010년은 4만 4,584ha로 10년 사이 40.1% 감소하였다. 2017년 2만 8,337ha까지 감소한 뒤 2018~2022년 재배면적은 3만 ha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11 - 1] 2022년산 건고추 생산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ha, kg/10a, 톤, %

연 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2	29,770	211	62,916
2021	33,373	239	79,887
평년	30,538	229	70,007
증감률	전년	-10.8	-11.6
	평년	-2.5	-7.9
			-10.1

주 1) 2021년산, 2022년산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실측 조사치

2) 평년은 2017~2021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2년산 단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6%, 7.9% 감소한 211kg/10a 내외이다. 정식 이후 극심한 가뭄으로 착과수가 감소하였고, 수확기 집중호우로 병해가 증가하였다. 7월 상순 이상고온으로 열과·곡과 등 상품성이 낮은 기형과 비율도 전·평년 대비 증가하였다.
- 10a당 수확량은 2000~2010년 250kg 수준에서 2011~2022년 230kg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내병성 향상 등 품종 개량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상기상 발생이 증가하여 단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1.1.2. 수출입 동향

- 2022년산 8~12월 건고추 수출량은 국내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5.9% 적은 2만 676톤이었다. 평년 동기 대비는 21.0% 많았다. 2008년 이후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기타 소스·김치 등의 수출이 늘었다.

[표 11-2] 2022년산 건고추 수출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

구 분	2022년산	2021년산	평년
총 수출량	20,676 (100.0)	53,401 (100.0)	42,329 (100.0)
건고추류	2,162 (10.5)	6,247 (11.7)	5,139 (12.1)
냉동고추	0 (0.0)	0 (0.0)	0 (0.0)
혼합조미료	1,995 (9.6)	5,239 (9.8)	4,418 (10.4)
기타 소스	14,634 (70.8)	36,926 (69.1)	28,592 (67.5)
고추장	1,148 (5.6)	2,999 (5.6)	2,490 (5.9)
김치	736 (3.6)	1,990 (3.7)	1,689 (4.0)

주 1) ()는 건고추 형태별 수출량 비중

2) 수출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있는 고춧가루에 수율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출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출량은 미포함

3) 고춧가루는 수율(63.8%)을 적용한 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출량에 포함

4) 2022년산 수출량은 2022년 8월~12월 누적 수출량이며, 평년은 2017년 8월~2022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관세청

- 떡볶이·불닭 소스 등으로 대표되는 기타 소스 수출량은 1만 5천 톤 내외로 전체 수출량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2022년산 기준 주요 수출국은 중국(21.8%), 미국(13.6%), 일본(12.4%), 러시아(10.0%), 대만(7.1%) 등으로 다양하였다.
- 전체 수출량 중 기타 소스 비율은 2010년 38.6%에서 2018년 62.4%, 2022년 70.8%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세계적으로 ‘에스닉 푸드(ethnic food: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아시아·중동 등지의 전통 음식)’ 수요가 증가한¹⁾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며 식문화도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 2022년산 8~12월 건고추 수입량은 국내산 도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동기 대비 각각 5.1%, 8.3% 많은 5만 6,816톤이었다.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수입량은 2017년 이후 12~13만 톤을 유지하고 있다.
- 2022년 8월 수입량은 수확기 작황 악화, 환율 상승 전망 등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었으나, 국내산 가격 상승 폭이 높지 않아 9월부터 증가 폭이 둔화되었다.

[표 11-3] 2022년산 건고추 수입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

구 분	2022년산	2021년산	평년
총 수입량	56,816 (100.0)	130,811 (100.0)	126,221 (100.0)
건고추류	3,029 (5.3)	8,667 (6.2)	6,048 (4.1)
냉동고추	18,359 (32.3)	43,179 (33.8)	48,315 (36.6)
혼합조미료	1,268 (2.2)	3,058 (2.4)	2,602 (1.8)
기타 소스	28,430 (50.0)	64,575 (49.0)	56,065 (41.5)
고추장	7 (0.0)	24 (0.0)	20 (0.0)
김치	5,723 (10.1)	11,309 (8.6)	13,172 (10.5)

주 1) ()는 건고추 형태별 수입량 비중

2) 수입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있는 고춧가루에 수출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입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출량은 미포함

3) 고춧가루는 수출(63.8%)을 적용한 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입량에 포함

4) 2022년산 수입량은 2022년 8월~12월 누적 수입량이며, 평년은 2017년 8월~2022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관세청

1) Fortune Business Insights, "Ethnic Food Market Size, Share & Covid-19 Impact Analysis, By Cuisine Type, Food Type, and Regional Forecast, 2021-2028", Market Research Report (2022): 160

- 수입 형태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기타 소스 비율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냉동고추, 김치 순이었다. 판매·유통이 편리한 기타 소스 수입 비율은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으나, 건조·가공이 필요한 냉동고추 수입 비율은 1.5%p 감소하였다.
 - 기타 소스 주요 수입국은 중국(61.9%), 태국(9.3%), 베트남(7.4%) 등으로 다진 양념 주 수입국인 중국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냉동고추 수입국은 중국 비율이 9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국외로 수출되는 기타 소스는 원료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다. 소스류 원료의 원산지 비율을 살펴보면 국산 원료는 전체 원료 사용량의 22.5%이고, 수입 원료 비율이 77.5%이다²⁾. 고추류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춧가루(91.4%)는 수입 비율이 88.9%에 달한다. 따라서 기타 소스는 국내에서 가공되어 판매·수출될 뿐 국산 건고추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볼 수 있다.
-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단가는 톤당 695달러로 전년(694달러)과 비슷하였다. 가공 후 고춧가루로 납품될 때 국내 시장 출하 가능 가격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5% 높은 600g당 5,090원(8,480원/kg)으로 추정된다.

1.1.3. 공급 동향

- 2021년산 건고추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이 많아 전년 대비 4.1% 증가한 15만 1천 톤이었다. 수출량 증가 영향으로 평년보다는 6.6% 감소하였다. 생산량 증가로 2021년산 기말 재고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많은 9천 톤 내외였다.
 - 공급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2000년 22만 톤 수준에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 2021년 건고추 자급률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5%p, 8.2%p 높은 53.0%로 추정된다. 평년 자급률은 45% 수준이다.
- 2022년산 건고추 순공급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9%, 3.0% 적은 14만 9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나, 이월 재고와 수입량 증가로 공급량 감소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말재고에 따라 순공급량은 달라질 수 있다.

2) 「2020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표 11 - 4] 2021년산 건고추 공급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천 톤, %, %p

구 분	2021년산	2020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공급량 (f=a+b+c-d-e)	151	145	161	4.1	-6.6
이월재고량(a)	2	6	8	-56.0	-67.7
생산량(b)	80	60	71	33.0	13.2
수입량(c)	131	133	123	-2.0	6.0
수출량(d)	53	52	35	2.7	53.6
기말재고량(e)	9	2	6	275.0	65.3
자급률(b/f)	53.0	41.5	44.8	11.5	8.2

-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생산·수입량 합에 수출·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3) 평년 공급량은 2016년 8월~2021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1.1.4. 소비 동향

- 2022년산 건고추 1인당 소비량은 국내산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량 증가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9%, 6.6% 적은 2.8kg 내외로 추정된다.

[표 11 - 5] 2022년산 건고추 1인당 소비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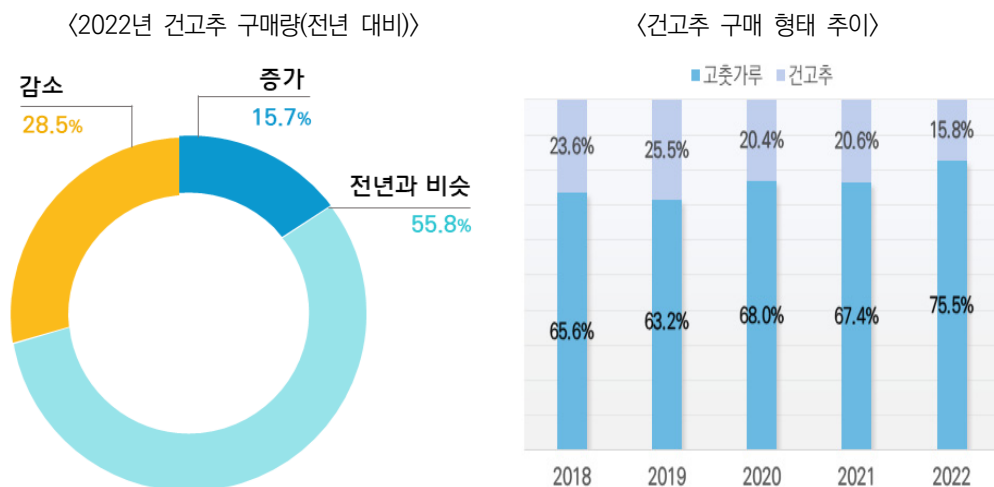
단위: kg, %

2022년산	2021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2.8	2.9	3.0	-3.9	-6.6

- 주 1) 1인당 소비량은 순 공급량에서 추계인구를 나누어서 산출
 2) 2022년산 소비량에서 수출량, 수입량은 추정치
 3) 평년 소비량은 2017년~2021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소비자 조사 결과(KREI 농업관측센터, 2022. 12.)³⁾, 소비자의 2022년 건고추(고춧가루) 구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 28.5%, ‘비슷’ 55.8%, ‘증가’ 15.7%로 나타나, 2021년보다 구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매량이 감소한 이유는 ‘보유한 양이 많아서(34.9%)’, ‘김장 양을 줄여서(23.6%)’⁴⁾, ‘외식 빈도가 증가해서(11.8%)’ 등이었다.
- 건고추(고춧가루) 구매 시기는 수확기인 8~10월이 45.9%로 가장 많았고,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소비자도 31.9%를 차지하였다. 구매한 건고추(고춧가루)는 김장철이 포함된 4분기에 절반가량(50.0%) 사용하고 그 외 분기에는 17% 내외씩 소비하였다.
- 구매 형태의 대부분(75.5%)은 고춧가루였으며, 건고추를 구매하여 빵아서 사용하는 비율은 15.8%이었다. 고춧가루 형태 구매 비율은 2018년 대비 9.9%p 증가하였으나, 건고추 형태 구매 비율은 7.8%p 감소하여 소비자가 전보다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1. 소비자 건고추 구매 실태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

- 3) 농업관측센터 전국 소비자 패널 628명을 대상으로 3일간(12월 20~22일) 양념채소류 소비 관련 조사를 실시함.
 4) 4인 가구 기준, 2022년 김장용 배추 구매 포기 수는 김장 부재료 가격 상승, 소비 침체 등으로 전년(22.1포기) 대비 5.3% 감소한 20.9포기로 조사됨(농업관측센터 전국 소비자 패널 6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022.12.20.~12.23.).

- 향후 건고추(고춧가루)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해도 소비자의 91.4%는 국내산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국내산 건고추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69.2%의 소비자가 ‘식품 안전성 문제’를 꼽았으며, 그 외 ‘품질이나 맛(20.5%)’, ‘단순 국내산 선호(6.8%)’ 등이었다.
- 가격에 따른 중국산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66.1%가 ‘중국산이 아무리 저렴해도 국산을 구매하겠다’ 하였으며, 26.9%는 국내산의 30~50% 수준이어야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국내산 건고추에 대한 선호는 2018년 88.7%에서 2019년 80.0%로 하락하였으나, 다시 늘어 2022년에는 91.4%로 증가하였다. 건고추·배추 등 중국산 농산물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이후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6] 소비자의 원산지별 건고추 구매 의향 추이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산	88.7	80.0	84.6	88.1	91.4
중국산	11.3	20.0	15.4	11.9	8.6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

- KREI 농업관측센터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2022년 3분기) 결과, 대량수요처의 약 44.9%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 중이다. 중국산을 사용하는 이유(복수 응답 가능)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67.9%로 가장 많았고, ‘국내산과 큰 품질 차이를 느끼지 못하여서(13.3%)’, ‘구매가 쉬워(12.9%)’ ‘국내산 가격 변동이 심해서(12.4%)’ 순이었다.

1.1.5. 가격 동향

- 2022년산 건고추 8~12월 화건 상품 가격은 국내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동기 대비 각각 12.8%, 4.5% 높은 12,950원/600g이었다.
 - 2022년산 건고추 가격은 10월이 8월보다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8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경남·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병충해가 확산되어 후기 작황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 11~12월 가격은 김장철인 11월 수급 안정 대책으로 2019년산 비축물량 1,500여 톤이 방출되어 하락하였다.

[표 11-7] 2022년산 건고추 화건 월별 도매가격 동향(연산 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원/600g(상품), %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22년산	12,745	13,201	13,346	12,925	12,552							
2021년산	12,026	11,808	11,302	11,205	11,330	11,160	11,077	10,860	10,860	10,860	10,870	11,056
평년	12,751	12,813	12,524	11,990	11,900	11,588	11,494	11,348	11,297	11,276	11,385	11,401
비교 인덱스	전년	6.0	11.8	18.1	15.4	10.8						
	평년	0.0	3.0	6.6	7.8	5.5						

주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2) 평년 가격은 2017년 8월~2022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6. 중국 동향

- 중국의 2021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 많은 31만 2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단수가 소폭 감소하여 평년보다는 1.2% 감소하였다.
 - 국내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과 반대로 중국 재배면적은 2000년 3만 5,000ha에서 2010년 4만 3,000ha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4만 8,237ha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2020년 재배면적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표 11-8] 2021년산 중국 건고추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생산량
2021		47	312
2020		46	308
평년		47	315
증감률	전년	2.2	1.3
	평년	0.1	-1.2

주: 평년은 2016년~2020년산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FAO

1.2. 2023년 상반기 전망

1.2.1. 2022년산 건고추 재고량 추정

- 2022년 12월 말 기준, 건고추 재고량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2021년 대비 13.8% 적은 1만 6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2021년산 재고 이월과 수입량 증가 영향으로 평년보다는 24.8% 많을 것으로 보인다.
 - 농가가 보유한 2022년산 재고는 전년 및 평년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 부진으로 조기에 출하를 마친 농가가 많기 때문이다. 농가에 있는 재고량 중 68%도 2022년 12월까지 출하가 완료되어 2021년산(52%) 대비 재고 소진이 빠를 전망이다.
- 2023년 상반기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은 재고량 감소로 전년 대비 높으나, 2022년 12월 가격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9] 2022년산 건고추 재고량 추정(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천 톤, %

연산		생산량 (A)	이월·수입량 (B)	8~12월 공급량 (C=A+B)	8~12월 수요량 (D)	12월 말 재고량 (E=C-D)
2022		63	69	132	116	16
2021		80	56	136	118	19
평년		70	59	129	116	13
증감률	전년	-21.2	22.5	-3.1	-1.4	-13.8
	평년	-10.1	17.3	2.4	-0.1	24.8

주: 평년은 2017~2021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1.2.2. 2023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2022. 12. 20.), 2023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은 2022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3.3%, 6.7% 감소한 2만 8,788ha 내외로 조사되었다. 2022년산 건고추 작황이 부진하였고, 농촌 인력난으로 인건비는 상승하여 재배 의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건고추의 10a당 노동 투입 시간은 144.8시간으로 콩(17.5시간), 참깨(50.9시간), 양파(90.3시간) 등 타 작목보다 많다. 노동 투입 시간이 많아 2021년 기준 10a당 생산비도 콩(68만 4,452원), 양파(294만 1,418원) 등에 비해 높은 388만 8,878원이다.
- 2022년 12월 말 기준, 재배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정식기 도매가격 등에 따라 실제 재배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표 11 - 10] 2023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2023년산	2022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28,788	29,770	30,853	-3.3	-6.7

주: 평년은 2018~2022년산의 최소, 최대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022년 12월 20일 표본농가 조사 결과

1.3. 중장기 전망

- 2022년산 건고추 총 공급량은 20만 8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수입량은 국내산 도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한 13만 6천 톤, 수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5만 2천 톤으로 예상된다. 2022년산 자급률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낮은 41.9% 내외로 전망된다.
- 2023~2032년간 건고추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⁵⁾로 인한 재배 기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연평균 1% 감소하며, 2027년 2만 8,237ha, 2032년에 2만 6,247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32년 27.2%로 2023년(18.4%)보다 상승 전망(「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통계청)

- 2023~2032년간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2023년 6만 2천 톤에서 2032년 5만 8천 톤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11] 건고추 중장기 수급 전망(연산기준: 8월~익년 7월)

구분	단위	2022	전망		
			2023	2027	2032
재배면적	ha	29,770	28,788	28,237	26,247
총 공급량	천 톤	208	206	206	206
생산량	천 톤	63	62	62	58
수입량	천 톤	136	138	139	142
총 수요량	천 톤	208	206	206	206
소비량	천 톤	150	148	147	144
수출량	천 톤	52	52	54	56
자급률	%	41.9	41.6	41.9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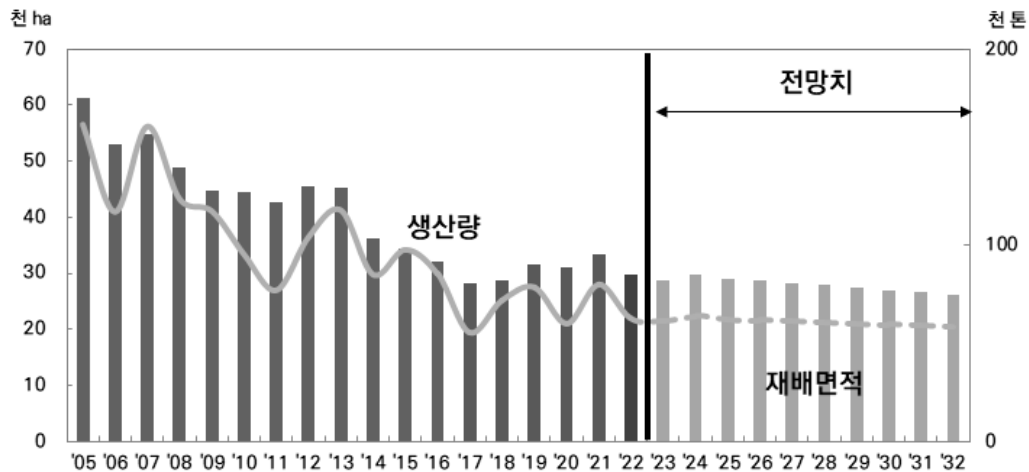
주 1) 2022년 생산량은 KREI 실측치이며, 총 공급량은 이월재고량, 총 수요량은 기말재고량이 포함

2) 2022년산 수출입량, 2023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3) 2023년산 재배면적은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그림 11-2. 건고추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연산기준: 8월~익년 7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 2023~2032년간 수입량은 대량수요처를 중심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수요가 유지되어 연평균 0.3% 증가하겠다. 2032년 수입량은 14만 2천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동기간 수출량은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호주, 베트남 등으로도 기타 소스, 김치 등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겠다.
- 2023~2032년간 건고추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2023년에서 2032년까지 20만 6천 톤 내외를 유지할 전망이다. 자급률은 2023년 41.6%에서 2032년 40.6%로 감소하겠다.

2.1. 최근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2022년산 마늘 생산량은 단수 감소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7.1%, 12.8% 감소한 29만 톤이었다.
- 2022년산 재배면적은 2만 3,686ha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나, 전년(2021년산) 가격 상승폭에 비해서 면적 증가폭은 작았다. 이는 산지가격 상승에 따른 종구비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 과거 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 3만 ha 수준을 유지하다 2006년 2만 8,594ha로 감소한 이후 전년산 수확기 가격에 따라 2만 5천 ha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11-12] 2022년산 마늘 생산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ha, kg/10a, 톤, %

연 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2		23,686	1,228	290,824
2021		23,528	1,330	312,995
평년		25,975	1,285	333,668
증감률	전년	0.7	-7.7	-7.1
	평년	-8.8	-4.4	-12.8

주 1) 2021년산,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평년은 2017년산~2021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2년산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겨울철 냉해와 생육기 가뭄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7.7%, 4.4% 감소한 1,228kg/10a이다.
 - 과거 10a당 수확량은 기상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5년 전후로 단위당 수확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서마늘 면적 비중이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022년산 마늘 품종별 생산량은 한지형 3만 9,731톤, 난지형 25만 1,092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8.0%, 6.9% 감소하였다.
 - 재배면적은 한지형 4,628ha(전년 대비 2.7% 감소), 난지형은 1만 9,058ha(전년 대비 1.5% 증가)였다.
 - 단수는 한지형 858kg/10a(전년 대비 5.4% 감소), 난지형 1,318kg/10a(전년 대비 8.3% 감소)으로 나타났다.
 - 난지형 마늘 품종별로 대서종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고, 남도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8% 감소하였다. 대서종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으나, 단수가 전년 대비 6.9% 감소하였다. 남도종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5%, 단수는 전년 대비 11.7% 감소하였다.

[표 11 - 13] 2022년산 마늘 품종별 생산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ha, kg/10a, 톤, %

연 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한지형	2022	4,628	858	39,731
	2021	4,757	908	43,187
	평년	5,196	843	43,793
	증감률	전년	-2.7	-5.4
		평년	-10.9	1.9
난지형	2022	19,058	1,318	251,092
	2021	18,771	1,437	269,808
	평년	20,779	1,395	289,876
	증감률	전년	1.5	-8.3
		평년	-8.3	-5.6

주 1) 2021년산,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평년은 2017년산~2021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1.2. 수출입 동향

- 2022년산(6~12월) 마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3%, 평년 동기 대비 62.4% 감소한 98톤이었다. 2022년 국내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수출 가능한 물량이 적어지면서 마늘 수출이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 수출 형태별로는 깐마늘이 43톤으로 가장 많았고, 건조마늘 37톤, 초산조제 8톤, 통마늘 5톤, 냉동마늘 4톤 순이었다.
 -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이 43%, 베트남이 25%, 일본이 18%로 나타났다.

[표 11-14] 2022년산 마늘 수출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

구 분	2022년산	2021년산	평년
총 수출량	98 (100.0)	201 (100.0)	760 (100.0)
깐마늘	43 (44.3)	76 (37.7)	591 (77.8)
통마늘	5 (4.7)	10 (5.1)	75 (9.9)
냉동마늘	4 (4.5)	13 (6.7)	24 (3.2)
건조마늘	37 (38.2)	80 (39.9)	49 (6.4)
초산조제마늘	8 (8.3)	21 (10.6)	21 (2.7)

주 1) 수출량은 깐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2) 2022년산 수출량은 2022년 6월~12월 누적 수출량이며, 평년은 2017년 6월~2022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3) ()는 마늘 형태별 수출량 비중

자료: 관세청

- 2022년산(6~12월) 마늘 수입량은 중국 내 산지가격 하락과 국내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5% 증가한 5만 4,921톤이었다. 마늘 수입량은 2006년 이후부터 국내 공급 부족 시기를 제외하고 5~6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수입 형태별로는 냉동마늘이 3만 6,196톤으로 가장 많았고, 통마늘 1만 5,827톤, 초산조제 2,204톤, 깐마늘 639톤(이 중 TRQ 382톤), 건조마늘 55톤 순으로 집계되었다. 국내산 마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냉동마늘 수입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 마늘 수입은 관세가 낮은(27%) 냉동마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정적인 외식업체 소비로 수입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2년 7~12월 통마늘 수입량은 2022년산 국내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해 진행된 TRQ (저율관세할당량) 수입권 공매 물량 1만여 톤이 도입되면서 전년과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통마늘(관세율 360%) 수입은 주로 TRQ형태로 수입되며, 해마다 차이가 있다. 2016년 (2016년 6월~2017년 5월)에 3만 2천 톤 내외가 TRQ로 도입된 이후 2020년까지 TRQ 도입 실적이 없어 통마늘 수입량은 평균 4천 톤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 2년간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2021년산 8천여 톤(이 중 TRQ 4,000톤), 2022년산 1만 5천여 톤(이 중 TRQ 약 9,300톤)의 통마늘이 수입되었다.
- 마늘이 일부 포함된 기타 소스 및 혼합조미료⁶⁾ 수입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5.0%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타 소스는 판매·유통이 편리하고, 조리에 활용하기 쉬운 다양한 소스류가 수입되면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22년산(6~12월) 기타 소스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7.8%, 22.9% 증가한 2,528톤이었다. 혼합조미료는 11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평년 동기 대비 34.6% 증가하였다.⁷⁾

[표 11-15] 2022년산 마늘 수입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

구 분	2022년산	2021년산	평년
총 수입량	54,921 (100.0)	53,902 (100.0)	50,501 (100.0)
간마늘	639 (1.2)	2,115 (3.9)	498 (1.0)
통마늘	15,827 (28.8)	8,018 (14.9)	5,171 (10.2)
냉동마늘	36,196 (65.9)	39,424 (73.1)	40,688 (80.6)
건조마늘	55 (0.1)	615 (1.2)	365 (0.7)
초산조제마늘	2,204 (4.0)	3,729 (6.9)	3,779 (7.5)

주 1) 수입량은 간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2) 2022년산 수입량은 2022년 6월~12월 누적 수입량이며, 평년은 2017년 6월~2022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3) ()는 마늘 형태별 수입량 비중

자료: 관세청

6) 기타소스의 HS code는 2103-90-9090이며, 혼합조미료 HS code는 2103-90-9030임.

7) 기타소스와 혼합조미료 수입량은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임.

- 2022년산 월별 수입량은 6월을 제외하고는 전년 및 평년 대비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산 마늘 생산량이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수확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이후 TRQ 도입이 시작되면서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2021년산의 경우, 2021년 6월과 2022년 1월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6월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확기 가격 상승 기대 영향으로, 1월은 TRQ 물량(깐마늘, 통마늘)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 2022년산 중국산 통마늘 국내 추정 도매가격은 중국 내 생산량 증가로 전년(7,556원) 대비 낮은 5,000원/kg 내외로 추정된다(기본관세 360% 적용). 이는 국내산 통마늘(상품 기준) 도매가격의 71% 수준이다.
- 2022년산 중국산 냉동마늘 국내 추정 도매가격은 환율 상승(전년 대비 13%)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kg당 1,800원 내외로 추정된다.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국내산 통마늘(중품 기준) 도매가격의 27% 수준이다.

[표 11-16] 중국산 통마늘 및 냉동마늘 국내 판매가격 추정(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원/kg, %

구 분	중국산 통마늘			중국산 냉동마늘		
	2022년산	2021년산	평년	2022년산	2021년산	평년
중국산 국내 추정 도매가격(A)	5,042	7,556	4,842	1,766	1,694	1,662
국내산 도매가격(B)	7,068	6,746	5,251	6,524	6,172	4,566
A/B	71.4	112.0	92.2	27.1	27.5	36.4

주 1) 중국산 마늘의 국내 추정 도매가격은 수입가격에 유통이윤 10%를 적용
 2) 2022년 6~12월은 확정치 기준, 익년 1~5월은 추정치
 3) 중국산 통마늘 추정시 국내산 도매가격은 통(피)마늘 상품 기준
 4) 중국산 냉동마늘 추정시 국내산 도매가격은 통(피)마늘 중품 기준
 자료: 관세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은행, 농업관측센터

2.1.3. 공급 동향

- 2021년산 마늘 공급량은 36만 5천 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3%, 5.1% 감소하였다. 수입량은 8.6% 증가하였으나, 생산량이 전년 대비 13.9% 감소하였다.
- 마늘 공급량은 2000년 48만 톤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2021년산 마늘 자급률은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6%p, 0.8%p 하락한 85.8%로 추정된다.

[표 11-17] 2021년산 마늘 공급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천 톤, %, %p

구 분	2021년산	2020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공급량 (f=a+b+c-d-e)	365	411	384	-11.3	-5.1
이월재고량(a)	4	4	6	0.0	-36.8
생산량(b)	313	363	333	-13.9	-6.0
수입량(c)	54	50	52	8.6	3.2
수출량(d)	0.2	1.9	0.7	-89.5	-72.4
기말재고량(e)	6	4	6	50.0	-5.3
자급률(b/f)	85.8	88.4	86.6	-2.6	-0.8

-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량·생산량·수입량 합에 수출량·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3) 2021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4) 평년 공급량은 2016년 6월~2021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2.1.4. 소비 동향

- 2022년산 1인당 마늘 소비량은 전년(6.4kg)과 비슷하고 평년(6.8kg) 대비 6.5% 감소한 6.4kg으로 추정된다.
 - 2022년산 소비량은 국내산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 2022년산 난지형 마늘 1인당 소비량 비중은 89~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난지형 생산량은 전년 대비 6.9% 감소하였으나, 대서종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 한지형 마늘은 고정 수요처가 있음에도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1인당 소비량 비중이 1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표 11-18] 2022년산 마늘 1인당 소비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구 분	2022년산	2021년산	평년
1인당 소비량(kg)	6.4	6.4	6.8
한지형(%)	10.3	11.1	11.1
난지형(%)	89.7	88.9	88.9
생산량(천 톤)	290.8	313.0	333.7
한지형(%)	13.7	13.8	13.1
난지형(%)	86.3	86.2	86.9

주 1) 1인당 소비량은 국내 생산량(종구용 제외)과 수입량, 이월재고량에서 수출량과 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순 공급량에서 추계인구를 나누어 1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
 2) 2021년산, 2022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3) 2022년산 소비량에서 수출량, 수입량은 추정치
 4) 평년 소비량은 2017년 6월~2022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소비자 조사 결과(KREI 농업관측센터, 2022. 12.)⁸⁾, 2022년 가정 내 마늘 구매량은 전년보다 ‘늘렸다’라는 응답이 24.1%, ‘비슷하다’는 57.1%, ‘줄었다’는 18.8%로 나타나, 2021년보다 구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늘이 건강에 좋고(30.2%), 외식 빈도가 전년보다 줄어(27.0%) 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이 많았다.
- 마늘은 ‘필요할 때마다’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전체의 5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햇마늘 수확기(5~7월), 김장철(11~12월) 순으로 나타났다. 수확기와 김장철에 마늘을 구매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1%p, 0.4%p 감소한 반면, 필요할 때마다 구매한다는 비중은 1.4%p 증가하였다.

[표 11-19] 마늘 구매시기

단위: %

구 분	필요할 때마다	햇마늘 수확기 (5~7월)	김장철 (11~12월)	기타
2022	56.5	30.0	12.4	1.1
2021	55.1	31.1	12.8	1.0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2022. 12.)

- 마늘 원산지과 품질은 소비자 구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국내산 여부(34.7%)’였으며, 다음으로 ‘모양

8) 농업관측센터 전국 소비자 패널 628명을 대상으로 3일간(2022년 12월 20~22일) 양념채소류 소비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및 신선도(19.8%)’, ‘가격(16.3%)’, ‘생산지역(11.9%)’, ‘품종(9.0%)’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 소비용으로 마늘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84.5%로 높게 나타났다.

- 외식 시에는 가정 소비용보다는 원산지를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이 쓰여 덜 먹게 되거나 거부감이 들어 먹지 않는다는 소비자가 전체의 20.7%로 2018년 조사치(41.4%) 대비 20.7%p 감소하였다.
- 소비자들은 주로 깐마늘 형태로 마늘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깐마늘 구매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40%까지 확대되었고, 기존 구매 형태였던 주대마늘⁹⁾은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마늘 구매 행태가 과거와 비교해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전년 조사와 유사하게 원물 형태보다는 1·2차 가공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소포장 판매, 조리의 간편함을 갖춘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 깐마늘·다진마늘 형태로의 구매 비중은 전년 조사치(52.7%)와 비슷한 5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1-20] 마늘 형태별 구매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주대마늘	43.4	42.7	36.8	32.4	28.4	28.6	27.7	22.3
통마늘	22.2	22.2	27.1	23.3	24.6	21.9	19.6	25.2
깐마늘	17.6	18.2	24.6	30.5	32.3	36.2	36.7	40.4
다진마늘	16.8	16.9	11.6	13.8	14.7	13.4	16.0	12.1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2022. 12.)

- 마늘을 구매할 때 품종을 구분하여 구매하는 소비자는 전체의 4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 조사치(47.3%)에 비해 5.1%p 감소하였다. 품종을 구분해서 구매하는 소비자 가운데에는 육쪽마늘¹⁰⁾ 구매 비중이 3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도 마늘¹¹⁾, 대서 마늘¹²⁾ 순으로 나타났다.

9) 밭에서 수확한 후 줄기와 외부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생마늘

10) 한지형 마늘로 우리나라 재래종 마늘임. 경북 의성, 충북 단양, 충남 태안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음.

11) 대만에서 도입된 마늘로 알싸한 맛이 특징임. 제주도, 전남 고흥·해남, 경남 남해 등 전남 및 경남 해안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음.

12) 스페인 도입종으로 상대적으로 매운맛이 덜한 것이 특징임. 경남 창녕·합천, 경북 영천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음.

- 품종을 구분해서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산이면 특징이 비슷할 거 같아서’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고, ‘마늘 품종을 잘 몰라서(16.7%)’, ‘맛이나 향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15.0%)’가 다음으로 높았다. 소비자들은 마늘 품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품종별 특성을 알지 못하고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1] 마늘 품종 구분 구매 여부

단위: %

구 분	육쪽마늘	대서 마늘	남도 마늘	따로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기 어려워 그냥 구입
2022	32.4	3.5	6.3	57.8
2018	40.0	2.3	5.0	52.7
2014	55.9	5.2	11.9	27.0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2022. 12.)

- 향후 국내 수급 불안에도 소비자의 약 80%가 국내산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산 마늘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품 안전성 문제(63.8%)’ 때문이며, 다음으로 ‘품질이나 맛이 좋아서(18.8%)’, ‘국내산 선호(12.8%)’ 순으로 나타났다.
 - 수입산 구매 의향이 있는 소비자(20.8%) 가운데 수입산을 구매하려는 이유로 ‘가격이 국내산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3.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가격에 따른 원산지별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마늘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내산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 비중은 전체의 51.6%로 전년 조사 대비 24.4%p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 마늘 가격 상승과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밥상 물가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가계 경제의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1-22] 국내산 마늘 구매 의향 충성도 추이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산	64.3	60.2	68.6	68.6	76.0	51.6
중국산	35.7	39.8	31.4	31.4	24.0	48.4

주: 구매 의향 충성도는 국내산과 중국산 마늘의 품질이 동일한 상황에서 중국산 마늘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국내산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 구매 의향 비중을 의미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2022. 12.)

2.1.5. 가격 동향

- 2022년산 마늘 가격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 (난지형 마늘) 6월 난지형 마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4.3% 상승한 7,039원/kg이었으며, 12월까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다. 정부 수급대책 시행과 냉동마늘 중심의 민간 수입량 증가로 상승폭은 둔화되었다.
 - (간마늘) 6월 간마늘 평균 가격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0.7%, 44.6% 상승한 8,773원으로 10월까지 전·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2월 가격은 8,175원으로 전년 대비 2.6% 하락하였다. 이는 정부 수매비축 물량 방출¹³⁾과 TRQ 도입(통마늘·간마늘) 지속, 그리고 냉동마늘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7월 이후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표 11 - 23] 2022년산 마늘 월별 가격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원/kg(상품), %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난지형 마늘	2022년산	7,039	7,233	7,059	7,034	7,009	7,054	7,051					
	2021년산	5,240	6,653	6,987	6,987	6,987	6,921	6,953	6,967	6,893	6,804	6,804	6,754
	평년	5,610	5,159	5,141	5,236	5,256	5,245	5,260	5,261	5,265	5,292	5,306	5,280
	동락률	전년	34.3	8.7	1.0	0.7	0.3	1.9	1.4				
		평년	25.5	40.2	37.3	34.3	33.3	34.5	34.0				
간 마늘	2022년산	8,773	8,778	8,550	8,340	8,198	8,183	8,175					
	2021년산	7,267	7,841	8,033	7,860	7,839	8,178	8,389	8,172	8,100	8,207	8,646	8,700
	평년	6,066	5,961	6,227	6,305	6,384	6,472	6,424	6,344	6,485	6,528	6,496	6,378
	동락률	전년	20.7	12.0	6.4	6.1	4.6	0.1	-2.6				
		평년	44.6	47.3	37.3	32.3	28.4	26.4	27.3				

주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2) 평년 가격은 2017년 6월~2022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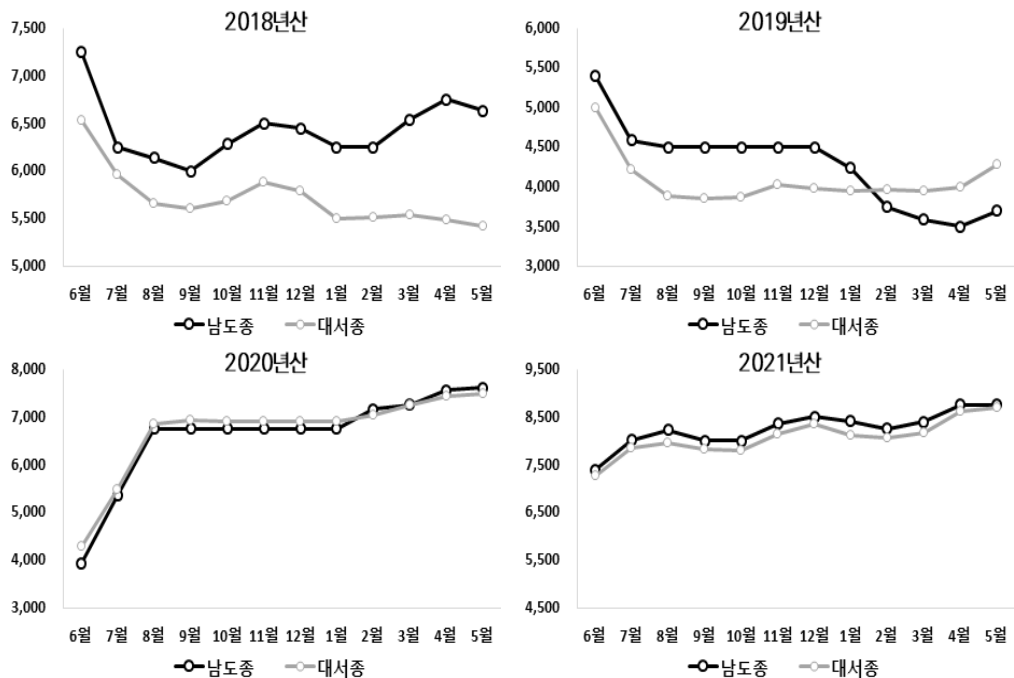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3) 국내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산 마늘 약 8,200톤(통마늘 기준)을 수매비축하였으며, 간마늘로 가공하여 시장에 지속적으로 방출(김장철 수급 안정 대책 5천 톤 포함)하였음. 2022년 12월 말 기준, 현재 정부 비축물량은 약 2천 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깐마늘 품종별 도매가격 추이를 보면, 대부분 남도 마늘이 대서 마늘보다 가격 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두 품종 간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의 선호가 남도종에 비해 매운맛과 아린맛이 덜한 대서종으로 전환되면서 대서 마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¹⁴⁾

그림 11-3. 깐마늘 품종별·월별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상품)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 평균 가격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4) 김병률·김성우·주재창·이상민·하수안. 2021.08. 「마늘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6. 중국 동향

- 2021년산 중국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과 평년 대비 소폭 증가한 2,051만 톤으로 추정된다.
- KREI 농업관측센터 중국 모니터 조사 결과, 중국 마늘 주산지인 산둥성의 2022년산 재배면적은 파종기 기상 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24] 2021년산 중국 마늘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

연 산		재배면적	생산량
2021		832	20,513
2020		828	20,408
평년		818	20,373
증감률	전년	0.5	0.5
	평년	1.7	0.7

주: 평년은 2016년산~2020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FAO

2.2. 2023년 상반기 전망

2.2.1. 2022년산 마늘 재고량 추정

-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5.8% 적은 9만 1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 2022년산 8,200톤이 포함되었다.
- KREI 농업관측센터 저장·가공업체 조사 결과(2022. 12. 20.), 2022년산 난지형 마늘 누적 출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적은 3만 9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TRQ 도입 및 냉동마늘 중심의 민간 수입량 증가와 김장수요 감소¹⁵⁾, 정부 비축물량 방출로 저장 마늘 출고가 원활하지 않아 출하량이 감소하였다.

15) 4인 가구 기준, 2022년 김장용 배추 구매 포기 수는 김장 부재료 가격 상승, 소비 침체 등으로 전년(22.1분기) 대비 5.3% 감소한 20.9포기로 조사됨(농업관측센터 전국 소비자 패널 6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022.12.20.~12.23.).

- 감모율을 고려한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4만 7천 톤 내외로 전년 동기 대비 4.4%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2022년 12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정부 구매비축물량 중 상품(통마늘 약 200톤)은 내년 1월까지 전량 방출할 계획이다. 중품 약 1,700톤은 비축을 유지할 예정이며, 2022년산 중품 500톤에 대한 추가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 2022년산 감모율은 수확기 기상 여건 호조로 저장마늘 품위가 양호하여 전년(10.8%)과 평년(9.0%) 대비 낮은 8.6%로 조사되었다.
- 향후 저장·가공업체 출고 의향은 전년 대비 ‘빠름’ 11.9%, ‘비슷’ 35.6%, ‘늦음’ 52.5%로 조사되어 출고시기가 전년 대비 늦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사업 시행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저장업체들이 출하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1-25]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추정(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톤, %

연 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2		90,781	39,070	47,280
2021		96,419	45,630	45,305
평년		107,000	45,135	56,305
증감률	전년	-5.8	-14.4	4.4
	평년	-15.2	-13.4	-16.0

주 1) 재고량(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2년산 8.6%, 2021년산 10.8%, 평년 9.0%)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며,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이 포함된 수치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2년 12월 20일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 결과

- 2023년 상반기(1~5월) 깐마늘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많아, 전년 동기(8,370원)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산 TRQ 도입은 2023년 1월에 완료되었으며, 국내산 중품 2,200톤의 정부 비축물량은 가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므로 2022년 12월 가격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2.2. 2023년산 마늘 재배면적 전망

- KREI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2022. 11. 20.), 2023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022년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2만 4,280ha로 조사되었다.
- 품종별로는 한지형 마늘은 전년과 비슷하고, 난지형 마늘은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지형 가운데 대서종은 전년 대비 6.3% 증가하는 반면, 남도종은 1.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26] 2023년산 마늘 재배면적 추정

단위: ha, %

연 산		한지형	난지형	전체
2023		4,635	19,645	24,280
2022		4,628	19,058	23,686
평년		5,013	20,612	25,625
증감률	전년	0.2	3.1	2.5
	평년	-7.5	-4.7	-5.2

주 1)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평년은 2018년산~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2년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 결과

- 지역별로는 영남과 호남지역이 전년 대비 각각 4.2%, 0.7% 증가하고, 충청과 경기·강원 지역은 각각 2.4%, 3.6%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남도종 마늘 주산지인 제주 는 2022년산 난지형 마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가 고령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작목 을 전환(무, 양배추, 콩 등)¹⁶⁾한 농가가 많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지형 마늘 주산지인 경북, 충청지역에서는 난지형 대서종 마늘로 품종을 전환한 농 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6) 2021년 기준 제주도 구마늘 노동투입시간은 10a당 149.6시간이며, 월동무는 16.0시간, 양배추는 53.8시간, 콩은 17.5시간(통계청)으로 마늘에 비해 절반 이하로 노동투입시간이 적음(「2021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2022.9.)」, 농촌진흥청).

- 12월 말 주산지 모니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마늘 생육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종 이후 건조한 날이 지속되면서 초기 생육에 다소 영향을 주었으나, 11~12월 강우로 가뭄 영향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1-27] 2023년산 마늘 지역별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3.6	2.4	0.7	4.2	-2.8	2.5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2년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 결과

2.2.3. 2023년산 마늘 생산량 전망

- 농업관측센터 추정 재배면적과 품종별 평년 단수를 적용한 2023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 대비 8.6% 증가하나 평년 대비 5.3% 감소한 31만 6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표 11-28] 2023년산 마늘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연 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3	24,280	1,301	315.9
2022	23,686	1,228	290.8
평년	25,625	1,301	333.5
증감률	전년	2.5	6.0
	평년	-5.2	0.0

주 1)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평년은 2018년산~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3. 중장기 전망

- 2022년산 마늘 총 공급량은 36만 1천 톤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량 증가폭보다 생산량 감소폭이 크기 때문이다. 2022년산 자급률은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85.8%)과 평년(86.6%) 대비 하락한 80.6%로 추정된다.
- 2023~2032년간 마늘 재배면적은 고령화¹⁷⁾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연평균 1.4% 감소하며, 2027년 2만 2,400ha, 2032년에 2만 1,5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2032년간 마늘 생산량은 단수 증가폭보다 면적 감소폭이 커, 2023년 32만 톤에서 2032년 29만 톤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위당 수확량은 난지형 대서종 마늘 생산 비중 확대와 재배 기술 발달로 2023년 이후 연평균 0.5% 증가가 전망된다.

[표 11 - 29] 마늘 중장기 수급 전망(연산기준: 6월~익년 5월)

구 분	단위	2022	전망		
			2023	2027	2032
재배면적	ha	23,686	24,280	22,436	21,455
총 공급량	천 톤	361	365	350	347
생산량	천 톤	291	316	298	292
수입량	천 톤	70	50	52	55
총 수요량	천 톤	361	365	350	347
소비량	천 톤	361	365	350	346
수출량	천 톤	0.3	0.4	0.3	0.3
자급률	%	80.6	86.5	85.1	84.2

주 1) 2022년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총 공급량은 이월재고량, 총 수요량은 기말재고량 포함

2) 2022년산 수출입량, 2023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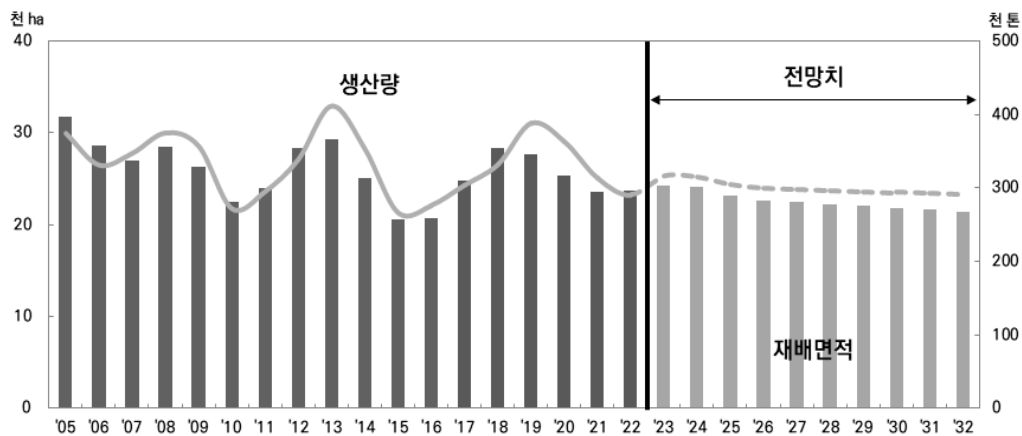
3) 2023년산 재배면적은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17) 203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7.2%로 2023년(18.4%)보다 상승 전망(「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통계청)

- 2023~2032년간 마늘 수입량은 기타 관련 품목 및 냉동마늘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면서 연평균 1.1% 증가하여 2032년에 6만 톤 내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2023~2032년간 마늘 총 공급량은 국내산 마늘 생산기반 축소로 인해 2023년 37만 톤에서 2032년 35만 톤 내외까지 감소하겠으며, 자급률도 2023년 87%에서 84%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4. 마늘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연산기준: 6월~익년 5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03

양파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최근 수급 동향

3.1.1. 생산동향

- 2022년산 양파 생산량은 115만 7,223톤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5.5%, 17.9% 감소하였다.
- 재배면적은 전년산 양파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대비 5.5%, 평년 대비 12.2% 감소한 1만 7,521ha로 나타났다.
 - 과거 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까지는 1만 ha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2만 ha 수준까지 증가하여 전년산 수확기 가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여 최근 3년간 1만 7천 ha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11 - 30] 2022년산 양파 생산 동향(연산기준: 4월 ~ 익년 3월)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2		17,521	6,605	1,157,223
2021		18,532	7,390	1,369,572
평년		19,949	7,068	1,409,969
증감률	전년	-5.5	-10.6	-15.5
	평년	-12.2	-6.5	-17.9

주 1) 2021년산,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2022년산 재배면적은 조생종양파 산지폐기면적(194ha)을 포함한 면적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단수는 생육 초기 냉해와 생육기 가뭄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았던 전년 대비 10.6% 감소한 6,605kg/10a으로 나타났다.
 - 과거 10a당 수확량은 기상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면서 6,000kg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9~2021년산이 기상여건 호조로 7,400kg 수준을 유지했었다.
- 2022년산 양파 품종별 생산량은 조생종 21만 6,004톤, 중만생종 94만 1,219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 18.3% 감소하였다.
 - 재배면적은 조생종 2,975ha(전년 대비 1.2% 증가), 중만생종 1만 4,546ha(전년 대비 6.7% 감소)이었다.
 - 단수는 조생종 7,261kg/10a(전년 대비 1.8% 감소), 중만생종 6,471kg/10a(전년 대비 12.4% 감소)로 나타났다.

[표 11-31] 2022년산 양파 품종별 생산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조생종	2022	2,975	7,261	216,004
	2021	2,939	7,397	217,425
	평년	2,863	7,320	209,595
	증감률	전년	1.2	-0.7
		평년	3.9	3.1
중만생종	2022	14,546	6,471	941,219
	2021	15,593	7,389	1,152,147
	평년	17,086	7,025	1,200,375
	증감률	전년	-6.7	-12.4
		평년	-14.9	-7.9

주 1) 2021년산,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2022년산 재배면적은 조생종양파 산지폐기면적(194ha)을 포함한 면적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3.1.2. 수출입 동향

- 2022년산(4~12월) 양파 수출량은 282톤으로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크게 적은 수준이다.
 - 양파 수출이 크게 적은 것은 2022년산 양파 생산량 감소로 수출 가능한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표 11-32] 2022년산 양파 수출 실적(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

구분	2022년산	2021년산	평년
총수출량	282 (100.0)	10,121 (100.0)	6,718 (100.0)
신선양파	270 (95.9)	10,116 (100.0)	6,715 (100.0)
건조양파	11 (3.8)	1 (0.0)	1 (0.0)
냉동양파	1 (0.3)	1 (0.0)	0 (0.0)
초산조제양파	0 (0.1)	2 (0.0)	1 (0.0)

주 1)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 2022년산은 4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

2) 평년 수출량은 2017년 4월~2022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3) ()는 양파 형태별 수출량 비중

자료: 관세청

- 2022년산(4~12월) 양파 누적수입량은 9만 9,506톤으로 국내산 양파 가격 강세로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101.8%, 86.3% 증가하였다. 과거 양파 수입량은 국내 가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 수입 형태별로는 신선양파가 7만 645톤으로 가장 많고, 건조양파 1만 5,923톤, 냉동양파 1만 2,928톤으로 집계되었다.
 - 2022년 신선양파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양파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시행으로 정부의 TRQ(저율관세할당량) 및 할당관세물량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각각 4,000여 톤, 7만여 톤이 수입 및 통관되었다. 신선양파(관세율 135%) 수입은 주로 TRQ 형태로 수입되며 해마다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2015년산 17만 6천 톤, 2017년산 1만 9천 톤의 신선양파가 TRQ로 도입되었다.

- 건조양파는 전년보다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음식점 및 가공업체 등과 같은 대량수요처에서의 수요가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신선양파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1 - 33] 2022년산 양파 수입 실적(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

구분	2022년산	2021년산	평년
총수입량	99,506 (100.0)	64,269 (100.0)	79,239 (100.0)
신선양파	70,645 (71.0)	10,523 (16.4)	36,871 (46.5)
건조양파	15,923 (16.0)	37,382 (58.2)	28,052 (35.4)
냉동양파	12,928 (13.0)	16,359 (25.5)	12,851 (16.2)
초산조제양파	10 (0.0)	6 (0.0)	11 (0.0)

주 1)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 2022년산은 4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

2) 평년 수입량은 2017년 4월~2022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3) ()는 양파 형태별 수입량 비중

자료: 관세청

- 2022년산 월별 수입량은 양파 생산량 감소로 수급안정 대책이 시행된 7월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양파 전체 수입량 중 TRQ 및 할당관세 물량인 신선양파의 수입량 증가로 전체 양파 수입량은 전·평년 대비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수입산 양파의 국내 추정 도매가격은 중국 내 생산량 감소로 전년산 추정 도매가격인 1,200원 대비 높았다. 기본관세를 135%를 적용할 경우, 저장양파 출하기인 9~12월 국내산 양파 도매가격(1,460원)과 비슷한 1,533원 내외로 추정된다.
- 수급안정대책으로 시행중인 할당관세(10%) 적용 시 약 850원 내외로 국내산 양파 도매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 - 34] 수입산 양파 국내 판매가격 추정 (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원/kg, %

구분	2022년산	2021년산	평년
수입산 국내 추정 도매가격(A)	1,533	1,200	1,045
국내산 도매가격(B)	1,239	726	841
A/B	123.7	165.3	124.2

주: 수입산 양파의 국내 추정 도매가격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관세청,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한국은행, 농업관측센터

3.1.3. 공급 동향

- 2021산 양파 순 공급량은 143만 7천 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입량은 35.4%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전년보다 2.2%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산 양파 자급률은 2020년 대비 1.2%p 증가한 95.3%로 추정된다.

[표 11-35] 2021년산 양파 공급 동향 (연산기준: 4월 ~ 익년 3월)

단위: 천 톤, %, %p

구 분	2021년산	2020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공급량	1,437	1,423	1,463	1.0	-1.7
전년 이월	13	3	-	-	-
생산량	1,370	1,340	1,387	2.2	-1.2
수입량	64	99	83	-35.4	-22.2
수출량	10	6	6	66.7	50.0
기말 재고	-	13	-	-	-
자급률	95.3	94.1	94.8	1.2	0.5

-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량·생산량·수입량 합에 수출량·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3) 2020년산, 2021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4) 평년 공급량은 2016년 4월~2021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3.1.4. 소비 동향

- 2022년산 1인당 양파 소비량은 전년(27.5kg) 및 평년(28.7kg) 대비 각각 10.9%, 14.4% 감소한 24.5kg으로 추정된다.

[표 11-36] 2022년산 양파 1인당 소비동향 (연산기준: 4월~익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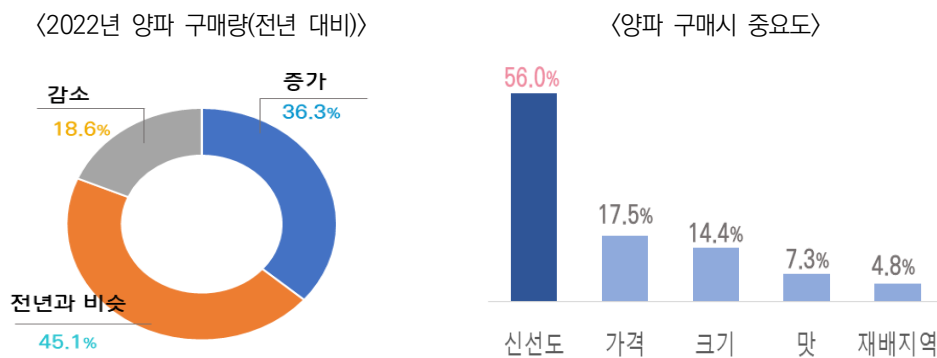
단위: kg, %

연산		양파 1인당 소비량
2022		24.5
2021		27.5
평년		28.7
증감률	전년	-10.9
	평년	-14.4

주 1) 1인당 소비량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이월재고량에서 수출량과 기말재고량을 제외하고 1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
 2) 2021년산, 2022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3) 2022년산 소비량에서 수출량, 수입량은 추정치
 4) 평년 소비량은 2017년 4월~2022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소비자 조사 결과(KREI 농업관측센터, 2022. 12.)¹⁸⁾, 2022년 가정 내 양파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늘었다는 응답은 36.3%, 줄었다는 응답은 18.6%였다.

그림 11-5. 소비자 양파 구매 실태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

18) 농업관측센터 전국 소비자 패널 628명을 대상으로 3일간(12월 20~22일) 양념채소류 소비 관련 조사를 실시함.

- 소비자가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신선도(56.0%)로 나타났으며 가격(17.5%), 크기(14.4%) 순으로 나타났다.
- 가격에 상관없이 중국산 양파가 아닌 국내산만 구매하겠다는 소비자 비중은 전체의 75%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식품 안전성’(66%)으로 조사되었다.
 - 중국산 농산물의 비위생적인 유통방식의 이슈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 국내산 구매의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37] 소비자의 원산지별 양파 구매 의향 추이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2
국내산	58.1	66.4	67.4	68.3	71.9	75.3
중국산	41.9	33.6	32.6	31.7	28.1	24.7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2022. 12.)

3.1.5. 가격 동향

- 2022년산 양파 가격은 수확 초기인 4~5월 전년산 저장양파가 여전히 시장에 출하되고 있어 낮게 형성되었으나, 이후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 전년산 저장양파의 출하로 2022년산 양파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4~5월 양파 가격은 전년 대비 23.2% 낮게 형성되었다.

[표 11-38] 2022년산 양파 가격 동향 (연산기준: 4월 ~ 익년 3월)

단위: 원/kg(상품),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022년산	611	603	1,343	1,356	1,408	1,441	1,517	1,455	1,421			
2021년산	1,005	574	651	700	884	915	907	892	747	569	449	418
평년	969	679	679	743	907	916	948	932	887	869	927	849
동락률	전년	-39.2	5.0	106.3	93.6	59.2	57.6	67.3	63.1	90.5		
	평년	-37.0	-11.3	97.9	82.5	55.2	57.3	60.1	56.1	60.5		

주: 평년 가격은 2017년 4월~2022년 3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중만생종양파 수확기 이후 2022년 양파 상품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814원/kg) 대비 74.5% 상승한 1,420원/kg이다.
- 중만생종양파의 수확이 시작된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7월부터 비축물량을 방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이후 가격 상승 폭은 둔화되었다.

3.1.6. 중국 동향

- 2021년산 중국 양파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2,500만 톤으로 추정된다.
- KREI 농업관측센터 모니터 조사 결과 전년보다 양파 가격이 낮으나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22년산 중국산 양파 재배면적은 2021년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39] 2021년산 중국 양파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연산		재배면적	생산량
2021		1,128	25,200
2020		1,126	25,151
평년		1,123	25,070
증감률	전년	0.2	0.2
	평년	0.4	0.5

주: 평년은 2016년~2020년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FAO

3.2. 2023년 상반기 전망

3.2.1. 2022년산 양파 재고량 추정

- 2022년산 양파 입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4.5% 적은 61만 5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 2022년산 1만 8천여 톤이 포함되었다.

- KREI 농업관측센터 저장·가공업체 조사 결과(2022. 12. 20.), 2022년산 양파 출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적은 36만 2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감모율을 고려한 2022년산 양파 재고량은 약 21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 2023년산 양파가 수확되기 전인 1~3월 양파 도매가격은 재고량 감소로 전년대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나, 할당관세 도입 등 정부 수급 안정대책 시행으로 2022년 12월 가격(1,421원)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40] 2022년산 양파 재고량 추정(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2		614,554	361,582	217,616
2021		718,793	405,345	268,663
평년		685,470	388,233	255,290
증감률	전년	-14.5	-10.8	-19.0
	평년	-10.3	-6.9	-14.8

주: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2년 14.0%, 2021년산 14.3%, 평년 14.1%)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정부 비축물량이 포함된 수치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2년 12월 2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 결과

3.2.2. 2023년산 양파 재배면적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2022. 11. 20.), 2023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대와 비슷한 1만 7,501ha로 조사되었다. 2022년산 수확 초기 4~5월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재배의향이 줄었으나, 수확기 이후 가격이 상승하며 재배의향도 증가하여, 전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1-41] 2023년산 양파 재배면적 추정

단위: ha %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23		2,926	14,575	17,501
2022		2,975	14,546	17,521
평년		2,923	16,588	19,511
증감률	전년	-1.6	0.2	-0.1
	평년	0.1	-12.1	-10.3

주 1) 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2022년산 조생종 면적은 산지폐기면적(194ha)을 포함한 면적 기준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품종별로는 조생종 양파가 1.6% 감소하고, 중만생종 양파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조생종양파 주산지인 제주지역의 증가폭이 크다. 2022년 9월 태풍으로 피해 입은 포전에서 양파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 12월 말 주산지 모니터 조사결과 정식 후 현재까지의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양파 가격 강세로 농가의 생육 관리도 철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2] 2023년산 양파 지역별 재배면적 증감률

단위: %

경기·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청	전체
-2.5	-0.1	1.5	-0.7	-3.3	3.9	-0.8	-0.1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2년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 결과

3.2.3. 2023년산 양파 생산량 전망

- 농업관측센터 추정 재배면적과 품종별 평년 단수를 활용한 2023년 양파 생산량은 전년 보다 9.6% 증가하나 평년 대비 10.3% 감소한 127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표 11-43] 2023년산 양파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3		17,501	7,248	1,269
2022		17,521	6,605	1,157
평년		19,511	7,248	1,414
증감률	전년	-0.1	9.7	9.6
	평년	-10.3	0.0	-10.3

주: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3.3. 중장기 전망

- 2022년산 양파 총 공급량은 127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량 감소폭이 크기 때문이다. 2022년산 자급률은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95.3%)과 평년(95.1%) 대비 하락한 91.8%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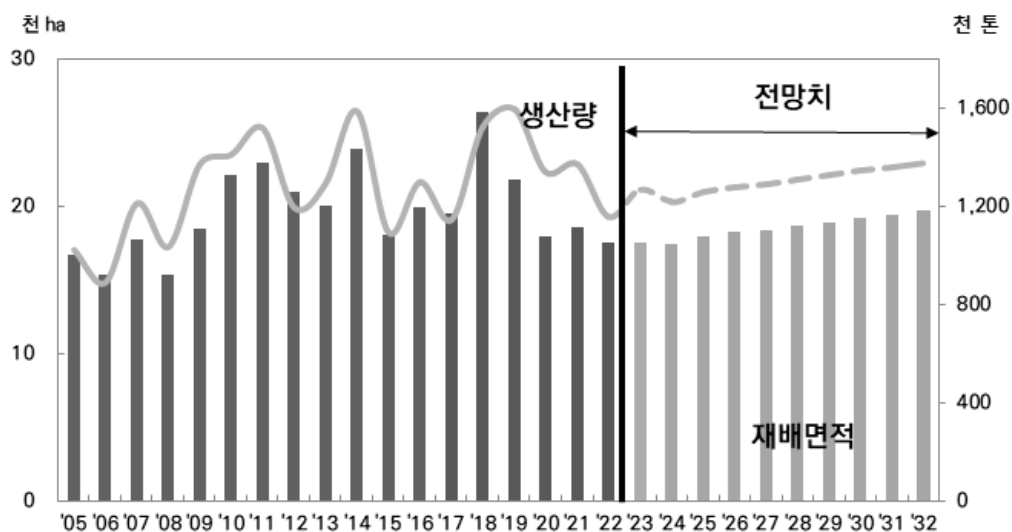
[표 11-44] 양파 중장기 수급 전망 (연산기준: 4월~익년 3월)

구분	단위	2022	전망		
			2023	2027	2032
재배면적	ha	17,521	17,501	18,412	19,670
총공급량	천 톤	1,268	1,349	1,371	1,464
생산량	천 톤	1,157	1,269	1,289	1,377
수입량	천 톤	110	80	82	87
총수요량	천 톤	1,268	1,349	1,371	1,464
소비량	천 톤	1,260	1,342	1,363	1,455
수출량	천 톤	7	7	8	8
자급률	%	91.8	94.5	94.6	94.6

- 주 1) 2022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총공급량은 이월재고량, 총수요량은 기말재고량 포함
 2) 2022년 수출입량, 2023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3) 2023년 재배면적은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 2023~2032년간 양파 재배면적은 연평균 1.1% 증가하며, 2027년 1만 8,412ha, 2032년에는 1만 9,670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2032년간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2023년 127만 톤에서 2032년 138만 톤 내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2032년간 양파 수입량은 국내산 양파 생산량 변화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나 8만 톤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 2023~2032년간 양파 총 공급량은 2023년 135만 톤에서 2032년 146만 톤 내외까지 증가하며, 자급률은 94%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6. 양파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 (연산기준 : 4월~익년 3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04

대파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4.1. 최근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 2022년 대파 재배면적은 2021~2022년 정식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9.9%, 14.9% 하락한 10,550ha로 조사되었다.
 - 봄대파 재배면적은 정식기인 2021년 9~11월 가격이 낮아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0.7%, 19.8% 감소하였다.
 - 고랭지, 가을,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정식기인 2022년 4~5월 가격이 낮아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3~28%, 6~26% 감소하였다.

[표 11 - 45] 2022년 대파 작형별 재배면적

단위: ha, %

구 분	2022년	2021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10,550	13,174	12,399	-19.9	-14.9
봄대파	2,373	2,993	2,959	-20.7	-19.8
고랭지대파	2,511	2,897	2,906	-13.3	-13.6
가을대파	1,712	2,362	2,322	-27.5	-26.2
겨울대파	3,952	4,922	4,212	-19.7	-6.2

주: 평년 재배면적은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2년 대파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7.2% 감소하고, 평년과 비슷한 35만 9,228톤 내외로 예상된다.

- 2022년 5~6월 출하되었던 봄대파는 가뭄 영향이 있었으나, 6월 강수로 주산지 피해가 크지 않아 단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 2022년 9~11월 출하되었던 고랭지 및 가을 대파 단수는 9~10월 큰 일교차와 병충해 발생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2022년 12월~2023년 5월 출하되는 2022년산 겨울 대파 단수는 11월 높은 기온으로 작황이 회복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46] 2022년 대파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톤, %

연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2		10,550	3,405	359,228
2021		13,174	2,939	387,184
평년		12,575	2,879	359,542
증감률	전년	-19.9	15.9	-7.2
	평년	-16.1	18.3	-0.1

주 1) 2022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 단수를 적용

2) 평년 생산량은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4.1.2. 수출입 동향

- 국내산 대파는 주로 신선대파와 건조대파로 수출되고 있으나,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으로 적은 수준이다. 2022년 대파 수출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감소한 25톤이었다.

[표 11-47] 2022년 대파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분	2022년	2021년	평년
총수출량	25 (100.0)	217 (100.0)	65 (100.0)
신선대파	18 (72.0)	15 (6.9)	4 (6.2)
건조대파	6 (24.0)	202 (93.1)	61 (93.8)
냉동대파	1 (4.0)	0 (0.0)	0 (0.0)

주 1) 신선대파는 HS코드 0703-90-9000(양파-쪽파-마늘-리크 외 기타 파속의 신선 또는 냉장채소), 0703-90-2000(신선대파-쪽파), 건조대파는 HS코드 0712-90-2030(파), 냉동대파는 2021년과 평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0710-80-9000, 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하였으며, 2022년은 신설된 HS코드 0710-80-9010(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함. 총수출량은 건조대파에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

2) 평년 수출량은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3) ()는 대파 형태별 수출량 비중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2년 대파 수입량은 1~4월 국내산 대파 가격 하락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2.1%, 4.7% 감소한 3만 9,400톤 내외였다.
- 신선대파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68.7%, 63.6% 감소한 2,600톤 내외였다.
- 2022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도매가격이 상승한 8~9월 수입량은 증가하였다.

[표 11-48] 2022년 대파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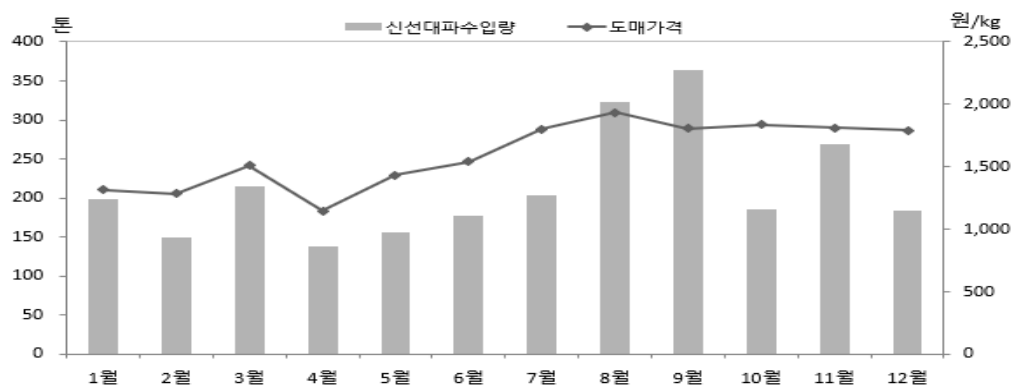
단위: 톤, %

구분	2022년	2021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총수입량	39,404 (100.0)	44,811 (100.0)	41,365 (100.0)	-12.1	-4.7
신선대파	2,586 (6.6)	8,272 (18.4)	7,102 (17.2)	-68.7	-63.6
건조대파	20,782 (52.7)	20,686 (46.2)	19,960 (48.2)	0.5	4.1
냉동대파	16,036 (40.7)	15,854 (35.4)	14,304 (34.6)	1.1	12.1

- 주 1) 신선대파는 HS코드 0703-90-9000(양파·쪽파·마늘·리크 외 기타 파속의 신선 또는 냉장채소), 0703-90-2000(신선대파·쪽파), 건조대파는 HS코드 0712-90-2030(파), 냉동대파는 2021년과 평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0710-80-9000, 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하였으며, 2022년은 신설된 HS코드 0710-80-9010(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함. 총수입량은 건조대파에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
- 2) 평년 수입량은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 3) ()는 대파 형태별 수입량 비중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림 11-7. 2022년 신선대파 월별 수입 동향



자료: 관세청,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중국산 신선대파의 국내 판매가격은 1,810원으로 전년 대비 4.3% 하락하였으나, 평년보다 51.9% 상승하면서 국내산 대파 도매가격(상품 기준)의 113% 수준이다.
- 2022년 중국산 대파의 작황이 부진하였고, 환율도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표 11-49] 2022년 중국산 신선대파 국내 판매가격 추정

단위: 원/kg, %

구 분	2022년	2021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중국산 국내판매가격(A)	1,810	1,892	1,192	-4.3	51.9
CIF가격	1,163	1,220	740	-4.7	57.2
통관 제비용 ¹⁾	647	672	452	-3.7	43.2
국내산 도매가격(B) ²⁾	1,603	2,365	1,702	-32.3	-5.8
A/B	112.9	80.0	70.0	41.3	61.3

주 1) 통관 제비용은 관세(27%), 수입 제비용, 수입업체 이윤,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등이 포함

2) 국내산 도매가격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대파 상품 연평균 가격

자료: 관세청,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한국은행, 농업관측센터

4.1.3. 공급 동향

- 2022년 국내 대파 공급량은 39만 9천 톤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7.7%, 0.6% 감소하였다. 생산량과 순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7.2%, 11.7% 감소하였다.
- 2022년산 대파 자급률은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수입량도 줄면서 전년 및 평년과 비슷한 90.1%로 추정된다.

[표 11-50] 2022년 대파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p

구 분	2022년	2021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공급량(e=a+d)	399	432	401	-7.7	-0.6
국내 생산량(a)	359	387	360	-7.2	-0.1
순수입량(d=b-c)	39	45	41	-11.7	-4.7
수입량(b)	39	45	41	-12.1	-4.7
수출량(c)	0	0.2	0.1	-88.6	-62.2
자급률(a/e)	90.1	89.7	89.7	0.5	0.5

주 1) 2022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수출입 물량 중 건조대파는 신선대파로 환산(수율 0.07% 적용)한 수치

3)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준 값

4) 평년 공급량은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관측센터

4.1.4. 소비 동향

- 2022년 대파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7.5% 감소하였고, 평년과 비슷한 7.7kg 내외로 추정된다.

[표 11-51] 2022년 대파 1인당 소비 동향

단위: kg, %

연도		대파 1인당 소비량
2022		7.7
2021		8.3
평년		7.7
증감률	전년	-7.5
	평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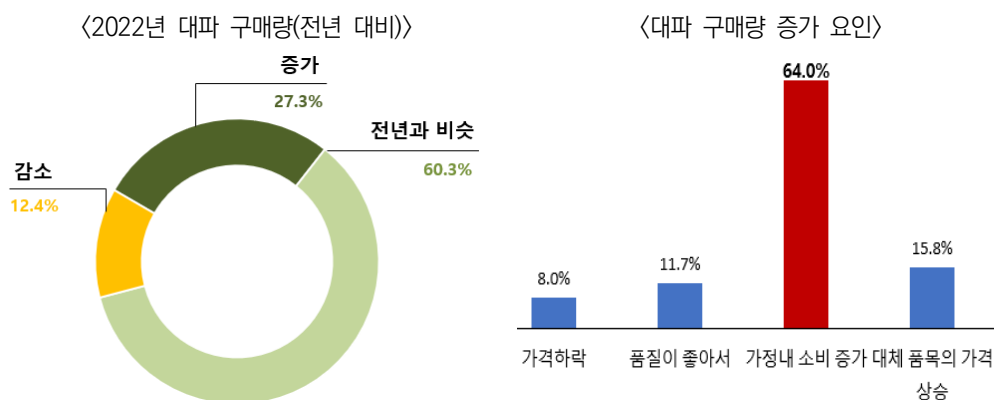
주 1) 대파 1인당 소비량은 대파 순 공급량에서 추계인구로 나누어서 산출

2) 평년 소비량은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소비자 조사 결과(KREI 농업관측센터, 2022. 12.)¹⁹⁾, 2022년 가정 내 대파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하다는 비중이 60.3%,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는 비중이 27.3%, 감소는 12.4%로 나타났다. 소비량이 증가한 이유는 가정 내 소비증가(64.0%)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대체 품목 가격 상승, 좋은 품질, 가격하락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8. 소비자 대파 구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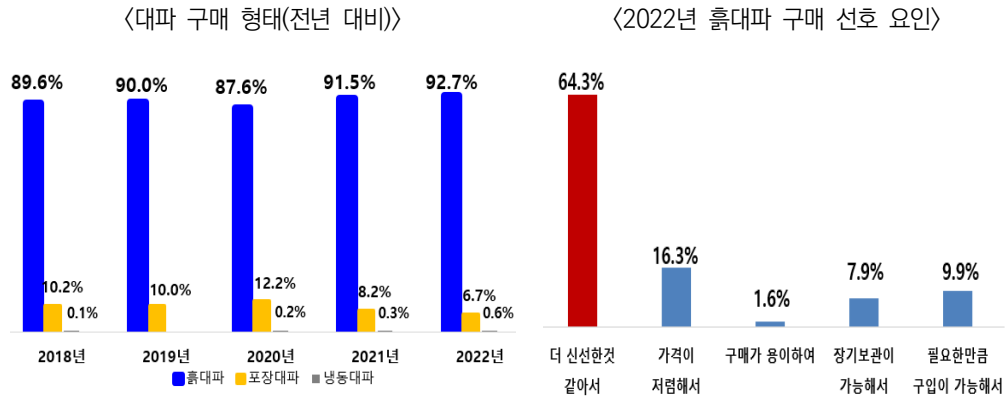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2022. 12.)

19) 농업관측센터 전국 소비자 패널 628명을 대상으로 3일간(12월 20~22일) 양념채소류 소비 관련 조사를 실시함.

- 소비자의 대파 구입 선호 형태는 최근 5년간 흙대파 비중이 90%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포장대파, 냉동대파 순으로 조사되었다. 흙대파를 선호하는 이유는 ‘더 신선한 것 같아서’(64.3%)가 가장 많았고, ‘가격이 저렴해서’, ‘필요한 양만큼 구입이 가능해서’, ‘장기 보관이 가능해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9. 흙대파 구매 실태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2022. 12.)

- 대다수 소비자의 대파 구입경로는 소매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이며, 연령별로 40~50대는 대형마트, 60대는 접근성이 좋은 소매점과 도매시장에서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대파를 구매하는 비중은 2.1%이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1-52] 소비자 연령별 대파 구매경로

단위: %

구분	대형마트	도매시장	소매점	온라인
40대	41.9	20.9	33.3	3.9
50대	35.9	26.3	35.2	2.5
60대	22.2	38.0	39.9	0.0
전체	33.5	28.3	36.1	2.1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2022. 12.)

- 대파는 소비자의 46%가 대형마트 할인행사와 김장철(11~12월)에 구매하며, 그 외에는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파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신선도(68.0%), 가격(12.8%), 원산지(12.2%) 포장단위(7.0%) 순이었다.
- 대파의 용도는 탕이나 찌개의 재료(37.3%), 볶음용(23.3%), 김치류 양념(18.1%), 육수용(11.4%), 파절임과 쌈 부재료(9.9%) 등으로 나타났다. 대파의 소비 대체 품목은 양파(48%), 쪽파(45%) 등으로 나타났다.

4.1.5. 가격 동향

- 겨울대파가 출하되는 1~5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 대비 하락하였다. 전년 겨울대파 출하 기 높은 가격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작황도 양호하였다.
- 노지 봄대파가 출하되는 6~7월에는 가뭄과 집중호우 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 우려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73.7%, 24.6% 높은 가격이 지속되었다.
 - 특히 경기도와 영남 지역 노지대파가 주 출하되는 7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크게 높은 1,802원/kg 이었다.
- 8~12월 도매가격은 부진했던 작황이 회복되며, 전년보다 높지만, 평년과 비슷한 1,840원 수준이 유지되었다.
 -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10~11월 높은 기온으로 단수가 증가하며 출하량은 평년 대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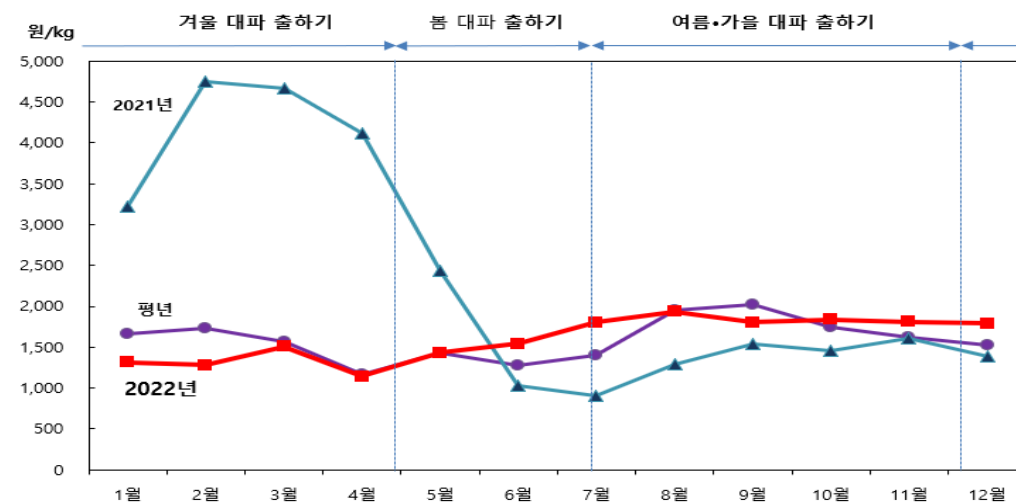
[표 11 - 53] 2022년 대파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상품),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1,316	1,284	1,508	1,147	1,431	1,542	1,802	1,935	1,807	1,837	1,809	1,818
2021년	3,216	4,745	4,667	4,117	2,432	1,028	913	1,287	1,540	1,454	1,604	1,395
평년	1,670	1,732	1,572	1,163	1,433	1,282	1,399	1,950	2,018	1,750	1,617	1,520
등락률	전년	-59.1	-73.0	-67.7	-72.2	-41.1	50.0	97.4	50.4	17.3	26.4	12.8
	평년	-21.2	-25.9	-4.1	-1.4	-0.1	20.3	28.8	-0.8	-10.5	5.0	11.8

주: 평년 가격은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그림 11-10. 2022년 대파 작형별 월별 도매가격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4.1.6. 중국 동향

- 2021년 중국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한파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대비 증가한 3만 2,785ha이었으며, 생산량은 112만 톤이었다.
- 2022년 중국 대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54] 2021년 중국 대파 생산 동향

단위: ha, 천 톤, %

구 분	2021	2020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재배면적	32,785	32,455	33,761	0.3	-0.2
리크(Leeks)	5,625	5,607	5,634	-1.0	-0.6
골파(Onions, shallots, green)	27,160	26,848	27,120	1.2	0.1
생산량	1,119	1,115	1,119	0.4	0
리크(Leeks)	141	142	143	-0.6	-1.0
골파(Onions, shallots, green)	978	973	976	0.5	0.1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FAO

4.2. 2023년 상반기 전망

- 2023년 1~5월까지 출하되는 2022년산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금년 정식기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6.2%, 5.3% 감소한 3,136ha로 추정된다.
 - 신안지역은 땅콩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어 전년 대비 6.3% 감소한 1,470ha로 조사되었다.
 - 진도지역은 기장, 수수, 배추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어 전년 대비 5.6% 감소한 1,026ha로 조사되었다. 진도의 주산지 항공촬영 결과(고군면, 군내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진도읍)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957ha로 집계되었다.

[표 11-55] 2022년산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

단위: ha, %

연산		신 안	진 도	영 광	기 타	전 체
2022		1,470	1,026	359	282	3,136
2021		1,568	1,087	360	329	3,344
평년		1,529	1,149	331	263	3,311
증감률	전년	-6.3	-5.6	-0.3	-14.5	-6.2
	평년	-3.8	-10.7	8.4	7.3	-5.3

자료: 전남도청, 농업관측센터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2022. 12. 20.), 겨울대파 출하시기는 전년과 평년 대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하반기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가 높은 수취가격을 기대하고 있어 포전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12월 말 기준, 겨울대파 작황은 12월에 내린 폭설과 강풍 영향이 있었으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겨울대파 작황 상태는 전년 대비 ‘ 좋음 ’ 41%, ‘ 비슷 ’ 30%, ‘ 나쁨 ’ 29%로 조사되었다. 신안지역 폭설 영향은 회복 중이며, 진도, 영광, 기타 지역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상반기(1~4월) 가격은 겨울대파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전년(1,313원/kg)과 평년(1,266원) 동기 대비 높으나, 2022년 12월(1,818원)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 2023년 4~6월경 출하되는 봄대파 재배면적은 정식기(2022년 하반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북지역의 돌려짓기와 휴경지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영남지역 노지대파 재배면적이 높은 가격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표 11-56] 2023년 봄대파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충청	전북	영남	전체
5.7	1.0	9.2	8.5	6.5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2년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2023년 5월까지 출하되는 2022년산 겨울대파 출하량은 면적이 감소하였으나, 2022년 11월 높은 기온으로 단수가 증가하여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5월 가격은 전년 및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4.3.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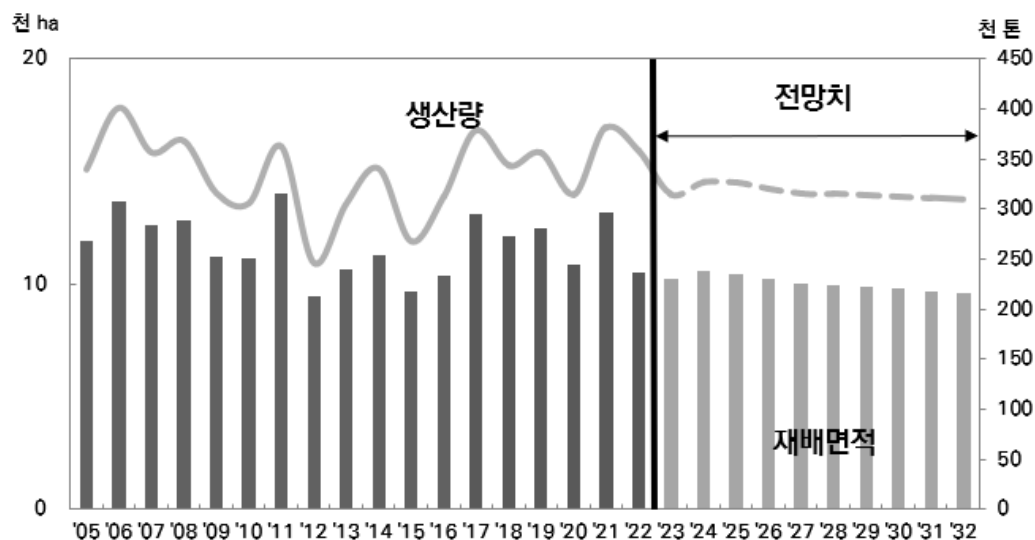
- 2023~2032년간 대파 재배면적은 전체 인구 감소에 따른 1인당 소비량 감소, 생산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연평균 1% 감소하여, 2027년 1만 ha, 2032년에는 9,6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2032년간 대파 생산량은 연평균 재배면적의 감소폭(0.7%)이 단수 증가폭(0.5%)보다 커 2023년 32만 톤에서 31만 톤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2032년간 대파 수입량은 건조대파와 냉동대파를 중심으로 연평균 1% 증가하여 2032년에는 4만 3천 톤 내외로 예상된다.
- 2023~2032년간 대파 총 공급량은 35만 톤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급률도 90%(2022년)에서 88%(2023년)로 하락한 후 2032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57] 대파 중장기 수급 전망

구 분	단위	2022	전 망		
			2023	2027	2032
재배면적	ha	10,550	10,224	10,044	9,604
총 공급량	천 톤	399	356	357	353
생산량	천 톤	359	315	316	309
수입량	천 톤	39	41	42	43
총 수요량	천 톤	399	356	357	353
소비량	천 톤	399	356	357	353
수출량	천 톤	0	0	0	0
자급률	%	90.1	88.4	88.3	87.7

주: 2022년 생산량과 2023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그림 11-11. 대파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5.1. 2000~2022년 건고추 수급 동향

[부표 11-1] 건고추 생산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ha, kg/10a, 톤

연산	면적	단수	생산량
2000	74,471	260	193,786
2001	70,736	255	180,120
2002	72,104	267	192,753
2003	57,502	230	132,010
2004	61,894	250	154,962
2005	61,299	263	161,380
2006	53,097	220	116,914
2007	54,876	292	160,398
2008	48,825	253	123,509
2009	44,817	262	117,324
2010	44,584	214	95,391
2011	42,574	181	77,110
2012	45,459	229	104,146
2013	45,360	260	117,816
2014	36,120	236	85,068
2015	34,514	283	97,697
2016	32,181	266	85,459
2017	28,337	197	55,714
2018	28,824	248	71,509
2019	31,644	248	78,437
2020	31,146	193	60,076
2021	33,373	239	79,887
2022	29,770	211	62,916

주: 2021~2022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2] 건고추 수출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출량						
		건고추류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
2000	6,958	3,127	0	1,326	886	497	1,123
2001	5,309	1,734	0	1,231	655	466	1,224
2002	6,530	2,063	3	1,783	698	489	1,494
2003	7,418	2,340	4	1,841	980	641	1,612
2004	7,893	2,342	1	1,719	1,419	747	1,664
2005	8,500	2,540	0	1,891	2,153	690	1,225
2006	9,788	2,724	3	1,895	3,234	693	1,239
2007	9,521	3,208	0	1,215	3,324	544	1,231
2008	10,077	3,158	0	1,964	2,876	760	1,320
2009	12,383	3,195	0	2,349	4,480	952	1,406
2010	14,395	3,273	2	3,156	5,561	1,096	1,307
2011	16,014	3,626	1	3,536	6,364	1,174	1,312
2012	18,203	3,972	1	4,064	7,660	1,248	1,258
2013	19,696	3,639	0	3,499	9,929	1,449	1,181
2014	21,899	3,887	0	3,113	12,339	1,456	1,103
2015	24,407	4,211	0	2,971	14,425	1,701	1,099
2016	27,627	3,911	0	3,389	17,415	1,801	1,111
2017	29,316	3,858	0	3,666	18,586	1,972	1,234
2018	33,421	4,821	1	4,175	20,859	2,173	1,392
2019	41,593	5,188	13	4,523	27,685	2,487	1,697
2020	51,973	5,354	1	4,509	37,366	2,783	1,959
2021	53,401	6,247	0	5,239	36,926	2,999	1,990
2022	20,676	2,162	0	1,995	14,634	1,148	736

주 1) 수출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있는 고춧가루를 수출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출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출량은 미포함

2) 고춧가루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출량에 포함

3) 2022년산은 8~12월 누적 수출량

자료: 관세청

[부표 11-3] 건고추 수입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입량						
		건고추류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
2000	29,915	8,131	1,032	5,826	14,880	16	30
2001	40,837	10,835	2,534	7,156	20,299	8	4
2002	36,326	6,928	2,160	5,218	21,465	7	548
2003	65,093	17,089	12,355	5,058	28,404	34	2,154
2004	76,015	13,664	18,968	5,243	33,159	101	4,879
2005	67,738	10,809	16,132	4,913	29,010	65	6,809
2006	82,664	9,550	25,755	5,105	33,225	88	8,940
2007	87,619	9,909	22,480	5,351	37,783	138	11,959
2008	86,328	9,458	30,307	5,196	33,361	84	7,922
2009	81,151	7,650	25,919	4,972	35,085	68	7,457
2010	101,463	11,735	34,139	5,226	39,466	73	10,823
2011	120,251	20,445	41,323	5,149	42,939	67	10,328
2012	96,753	5,235	37,777	4,127	39,106	42	10,466
2013	96,407	6,543	32,359	4,256	43,199	35	10,015
2014	105,707	8,009	37,369	4,406	45,587	27	10,310
2015	105,636	6,093	37,595	5,150	45,786	23	10,990
2016	110,179	4,087	42,418	4,043	46,840	18	12,774
2017	122,423	4,135	49,134	2,638	53,138	14	13,365
2018	124,510	5,095	47,179	1,861	56,269	18	14,087
2019	123,343	5,730	48,599	2,316	53,140	21	13,538
2020	133,458	7,315	51,924	2,849	58,746	21	12,602
2021	130,811	8,667	43,179	3,058	64,575	24	11,309
2022	56,816	3,029	18,359	1,268	28,430	7	5,723

주 1) 수입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고춧가루를 수출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입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입량은 미포함

2) 고춧가루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입량에 포함

3) 2022년산은 8~12월 누적 수입량

자료: 관세청

[부표 11-4] 건고추 공급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천 톤, %

연산		공급량 (f=a+b+c-d-e)					자급률 (b/f)
		이월재고량 (a)	생산량 (b)	수입량 (c)	수출량 (d)	기말재고량 (e)	
2000	219	3	194	30	7	1	88.6
2001	207	1	180	41	5	10	87.2
2002	215	10	193	36	7	18	89.8
2003	207	18	132	65	7	1	63.9
2004	220	1	155	76	8	4	70.4
2005	222	4	161	68	8	3	72.8
2006	190	3	117	83	10	3	61.6
2007	240	3	160	88	10	1	66.7
2008	201	1	124	86	10		61.5
2009	185		117	81	12	1	63.4
2010	179	1	95	101	14	4	53.2
2011	184	4	77	120	16	1	41.8
2012	182	1	104	97	18	2	57.3
2013	187	2	118	96	20	10	63.2
2014	171	10	85	106	22	8	49.8
2015	173	8	98	106	24	14	56.5
2016	171	14	85	110	28	11	50.0
2017	154	11	56	122	29	6	36.2
2018	164	6	72	125	33	5	43.7
2019	160	5	78	123	42	6	49.1
2020	145	6	60	133	52	2	41.5
2021	151	2	80	131	53	9	53.0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생산·수입량 합에 수출·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5] 건고추 화건 및 양건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상품기준)

단위: 원/600g

연산	화건	양건
2000	4,637	5,857
2001	4,406	5,101
2002	3,737	5,751
2003	6,084	4,954
2004	5,225	6,150
2005	4,448	7,283
2006	6,079	6,063
2007	4,652	6,525
2008	5,768	6,978
2009	5,723	6,294
2010	8,306	6,971
2011	13,835	8,015
2012	9,732	12,940
2013	6,714	15,142
2014	8,369	10,145
2015	7,750	9,091
2016	5,898	9,966
2017	11,952	8,115
2018	12,285	9,933
2019	8,597	14,350
2020	15,966	12,641
2021	11,535	14,105
2022	12,954	14,825

주 1) 전국 5대 도매시장(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평균 가격

2) 2022년은 8~12월 평균 가격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표 11-6】 중국 건고추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연산	면적	단수	생산량
2000	35	606	212
2001	35	613	215
2002	36	620	220
2003	36	639	230
2004	37	641	235
2005	37	658	240
2006	38	645	245
2007	40	625	250
2008	41	615	252
2009	42	619	260
2010	43	616	265
2011	43	644	277
2012	43	674	290
2013	44	682	300
2014	45	683	307
2015	46	668	306
2016	46	670	309
2017	47	672	315
2018	48	674	321
2019	48	675	326
2020	46	668	308
2021	47	662	312

자료: FAO

5.2. 2000~2022년 마늘 수급 동향

[부표 11-7] 마늘 생산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ha, kg/10a, 톤

연 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44,941	1,056	474,388
2001	37,118	1,095	406,385
2002	33,153	1,190	394,482
2003	33,140	1,143	378,846
2004	30,237	1,183	357,824
2005	31,766	1,180	374,980
2006	28,594	1,159	331,379
2007	26,986	1,288	347,546
2008	28,416	1,321	375,463
2009	26,323	1,357	357,278
2010	22,414	1,212	271,560
2011	24,035	1,227	295,002
2012	28,278	1,199	339,113
2013	29,352	1,405	412,250
2014	25,062	1,412	353,761
2015	20,638	1,290	266,272
2016	20,759	1,327	275,549
2017	24,864	1,221	303,578
2018	28,351	1,170	331,741
2019	27,689	1,400	387,671
2020	25,372	1,432	363,432
2021	23,528	1,330	312,995
2022	23,686	1,228	290,824

주: 2021년산,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8] 마늘 품종별 생산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ha, kg/10a, 톤

연 산	한지형			난지형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9,909			35,032		
2001	8,385			28,733		
2002	6,847			26,306		
2003	6,190			26,950		
2004	6,060			24,177		
2005	6,334			25,432		
2006	5,961			22,633		
2007	5,669			21,317		
2008	5,438			22,978		
2009	5,384			20,939		
2010	4,808	838	40,281	17,606	1,314	231,280
2011	5,537	790	43,745	18,498	1,358	251,257
2012	6,289	825	51,904	21,989	1,306	287,209
2013	6,185	981	60,676	23,167	1,518	351,574
2014	5,282	936	49,415	19,780	1,539	304,346
2015	4,759	896	42,637	15,879	1,408	223,635
2016	4,261	915	38,990	16,498	1,434	236,559
2017	5,304	823	43,667	19,560	1,329	259,912
2018	5,379	812	43,656	22,972	1,254	288,085
2019	5,084	867	44,055	22,605	1,520	343,615
2020	5,199	994	51,698	20,173	1,545	311,734
2021	4,757	908	43,187	18,771	1,437	269,808
2022	4,628	858	39,731	19,058	1,318	251,092

주 1) 품종별 단위당 수확량 및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2021년산,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9] 마늘 수출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연 산	총 수출량					
		깐마늘	통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
2000	7,097		6,793		9	295
2001	21,279	205	5,401	272	15,355	47
2002	187	14	80	4	34	55
2003	919	58	760	30	5	66
2004	359	36	224	1	16	82
2005	302	60	33	2	124	84
2006	478	2	407		4	65
2007	171	115	9	1	7	39
2008	226	61	74	5	75	12
2009	285	53	19	1	200	13
2010	205	17	38	40	75	35
2011	602	10	504	3	57	28
2012	836	4	781	3	12	36
2013	93	14	2	18	14	46
2014	138	57	5	17	18	41
2015	289	5	143	53	55	34
2016	105	19	8	27	21	30
2017	152	16	74	12	27	23
2018	127	10	45	10	41	21
2019	4,229	2,640	1,411	106	55	17
2020	1,905	1,682	106	46	51	20
2021	201	76	10	13	80	21
2022	98	43	5	4	37	8

주 1) 수출량은 깐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2) 2022년산 수출량은 6~12월 누적 수출량

자료: 관세청

[부표 11-10] 마늘 수입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연 산		총 수입량				
		깐마늘	통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
2000	26,184	12	64	7,682	13,645	4,781
2001	26,395		12,618	10,515	179	3,082
2002	34,659	385	13,283	14,778	369	5,843
2003	53,805	4,086	14,483	24,587	2,831	7,817
2004	61,316	8,578	13,641	31,520	1,170	6,407
2005	42,969	1,751	9,625	23,027	3,781	4,786
2006	55,687	768	13,418	32,836	2,663	6,001
2007	70,747	3,193	10,007	44,913	3,096	9,538
2008	51,226	1,755	3,418	31,234	8,430	6,390
2009	37,256	31	5,964	25,025	95	6,141
2010	90,205	2,135	36,003	47,227	904	3,936
2011	92,031	2,020	32,330	50,951	2,505	4,224
2012	50,456	1,095	10,056	30,313	4,381	4,611
2013	53,753	1,360	1,005	42,129	4,178	5,082
2014	51,096	1,948	4,493	36,293	3,482	4,880
2015	76,926	2,619	30,355	38,892	811	4,249
2016	69,856	1,248	26,031	38,955	56	3,567
2017	51,109	594	3,781	42,658	228	3,848
2018	55,957	556	6,680	44,406	574	3,741
2019	40,297	235	791	35,230	293	3,747
2020	49,624	344	5,053	39,982	73	4,173
2021	53,902	2,115	8,018	39,424	615	3,729
2022	54,921	639	15,827	36,196	55	2,204

주 1) 수입량은 깐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2) 2022년산 수입량은 6~12월 누적 수입량

자료: 관세청

[부표 11-11] 마늘 공급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천 톤, %

연 산	공급량 (f=a+b+c-d-e)						자급률 (b/f)
		이월재고량 (a)	생산량 (b)	수입량 (c)	수출량 (d)	기말재고량 (e)	
2000	481	3	474	26	7	15	98.5
2001	421	15	406	26	21	6	96.6
2002	421	6	394	35	0	14	93.7
2003	440	14	379	54	1	6	86.2
2004	424	6	358	61	0	1	84.4
2005	418	1	375	43	0	1	89.8
2006	387	1	331	56	0	1	85.7
2007	413	1	348	71	0	6	84.1
2008	432	6	375	51	0	0	86.8
2009	394	0	357	37	0	0	90.6
2010	362	0	272	90	0	0	75.1
2011	386	0	295	92	1	0	76.3
2012	389	0	339	50	1	0	87.2
2013	451	0	412	54	0	15	91.4
2014	415	15	354	51	0	5	85.3
2015	345	5	266	77	0	3	77.2
2016	338	3	276	70	0	10	81.5
2017	356	10	304	51	0	9	85.4
2018	391	9	332	56	0	6	84.9
2019	426	6	388	40	4	4	91.1
2020	411	4	363	50	2	4	88.4
2021	365	4	313	54	0	6	85.8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량·생산량·수입량 합에 수출량·기말 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3) 2021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 - 12] 마늘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원/kg

연 산	난지형 마늘 (상품 기준)	간마늘(상품 기준)		
			대서종	남도종
2000	1,661			
2001	1,845			
2002	1,959			
2003	2,456	4,546		
2004	2,244	3,530		
2005	2,041	3,405		
2006	2,290	3,748		
2007	2,104	3,542		
2008	1,779	3,153		
2009	2,483	4,049		
2010	5,454	7,142		
2011	3,861	5,897		
2012	3,937	5,969		
2013	2,746	4,140		
2014	3,362	4,750		
2015	5,346	7,194		
2016	6,169	7,246		
2017	5,855	6,550		
2018	5,286	5,835	5,714	6,441
2019	3,469	4,112	4,080	4,272
2020	4,488	6,298	6,698	6,615
2021	6,746	8,103	8,075	8,256
2022	7,068	8,428	8,364	8,792

주: 2022년은 6~12월 평균 가격이며, 전국 5대 도매시장(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평균 가격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표 11-13] 중국 마늘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연 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560	1,337	7,486
2001	585	1,350	7,894
2002	627	1,447	9,080
2003	632	1,594	10,078
2004	638	1,661	10,593
2005	648	1,710	11,083
2006	657	1,762	11,568
2007	757	2,123	16,065
2008	822	2,233	18,357
2009	779	2,306	17,968
2010	804	2,307	18,549
2011	794	2,330	18,508
2012	800	2,310	18,492
2013	783	2,457	19,227
2014	791	2,533	20,047
2015	842	2,585	21,766
2016	805	2,525	20,326
2017	801	2,507	20,096
2018	825	2,515	20,739
2019	824	2,473	20,385
2020	828	2,465	20,408
2021	832	2,466	20,513

자료: FAO

5.3. 2000~2022년 양파 수급 동향

[부표 11 - 14] 양파 생산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kg/10a, 톤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16,773	5,176	868,097
2001	18,995	5,613	1,066,224
2002	15,314	6,092	932,978
2003	12,352	6,033	745,203
2004	15,563	6,090	947,797
2005	16,737	6,114	1,023,331
2006	15,315	5,809	889,619
2007	17,751	6,836	1,213,375
2008	15,392	6,725	1,035,076
2009	18,514	7,412	1,372,291
2010	22,113	6,384	1,411,646
2011	22,976	6,616	1,520,016
2012	20,965	5,703	1,195,737
2013	20,036	6,458	1,294,009
2014	23,911	6,649	1,589,957
2015	18,015	6,072	1,093,932
2016	19,896	6,528	1,298,749
2017	19,538	5,858	1,144,493
2018	26,425	5,756	1,520,969
2019	21,777	7,322	1,594,450
2020	17,930	7,474	1,340,134
2021	18,532	7,390	1,369,572
2022	17,521	6,605	1,157,223

주: 2020년산, 2021년산,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 - 15] 양파 품종별 생산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kg/10a, 톤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1,642	5,577	91,574	15,131	5,132	776,523
2001	3,149	5,287	166,488	15,846	5,678	899,736
2002	2,496	5,488	136,980	12,818	6,210	795,998
2003	2,292	5,983	137,119	10,060	6,045	608,084
2004	2,769	6,242	172,844	12,794	6,057	774,953
2005	2,450	6,625	162,312	14,287	6,027	861,019
2006	2,599	5,363	139,380	12,716	5,900	750,239
2007	3,203	6,411	205,352	14,548	6,929	1,008,023
2008	1,852	6,340	117,417	13,540	6,777	917,659
2009	2,479	6,731	166,868	16,035	7,517	1,205,423
2010	2,561	5,681	145,490	19,552	6,476	1,266,156
2011	2,661	6,556	174,450	20,315	6,624	1,345,566
2012	2,275	5,808	132,135	18,690	5,691	1,063,602
2013	1,447	5,716	82,716	18,589	6,516	1,211,293
2014	1,999	6,821	136,353	21,912	6,634	1,453,604
2015	2,013	6,274	126,297	16,002	6,047	967,636
2016	2,990	6,297	188,278	16,906	6,569	1,110,471
2017	2,796	6,296	176,037	16,742	5,785	968,456
2018	3,577	5,838	208,809	22,849	5,743	1,312,160
2019	2,855	7,590	216,658	18,923	7,281	1,377,792
2020	2,683	7,578	203,318	15,247	7,456	1,136,816
2021	2,939	7,397	217,425	15,593	7,389	1,152,147
2022	2,975	7,261	216,004	14,546	6,471	941,219

주: 2020년산, 2021년산,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16] 양파 수출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출량			
		신선양파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
2000	245	243	1	0	0
2001	3,374	3,374	0	0	0
2002	5,810	234	5,556	20	0
2003	296	68	227	0	0
2004	257	11	245	0	1
2005	320	75	246	0	0
2006	416	361	55	0	0
2007	1,238	1,172	66	0	0
2008	105	1	104	0	1
2009	10,131	9,230	888	12	1
2010	3,512	3,502	3	3	4
2011	760	749	0	10	0
2012	1,154	941	185	27	0
2013	799	798	1	0	0
2014	24,337	24,332	3	1	0
2015	224	224	0	0	0
2016	8,916	8,887	0	27	1
2017	582	550	1	27	3
2018	4,420	4,417	0	0	2
2019	50,076	49,937	139	0	0
2020	5,613	5,611	1	0	0
2021	10,121	10,116	1	1	2
2022	282	270	11	1	0

주 1) 수출량은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한 수치

2) 2022년산은 4~12월 누적 수출량

자료: 관세청

[부표 11 - 17] 양파 수입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입량				
		신선양파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
2000	25,967	9,793	16,017	157	0
2001	4,818	832	3,690	295	2
2002	28,691	18,245	15,808	323	14
2003	98,726	85,996	11,072	1,653	6
2004	57,776	33,840	22,849	1,013	75
2005	46,621	11,730	34,489	347	54
2006	64,892	55,604	7,853	1,383	53
2007	33,659	7,842	24,139	1,556	122
2008	65,112	54,847	7,357	2,816	92
2009	22,246	2,788	16,618	2,745	94
2010	49,134	25,796	19,851	3,383	104
2011	20,916	7,369	10,149	3,332	67
2012	84,237	62,944	17,461	3,753	80
2013	64,996	36,264	21,407	7,274	52
2014	24,033	934	17,264	5,819	16
2015	214,878	181,593	24,550	8,710	25
2016	74,265	41,730	22,602	9,910	22
2017	181,400	145,979	24,042	11,365	14
2018	73,965	38,407	22,781	12,768	10
2019	58,650	18,894	28,077	11,661	18
2020	99,483	53,312	32,037	14,125	10
2021	64,269	10,523	37,382	16,359	6
2022	99,506	70,645	15,923	12,928	10

주 1) 수입량은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한 수치

2) 2022년산은 4~12월 누적 수입량

자료: 관세청

[부표 11-18] 양파 공급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천 톤, %

구분		공급량 (f=a+b+c-d-e)					자급률 (b/f)
		이월재고량(a)	생산량(b)	수입량(c)	수출량(d)	기말재고량(e)	
2000	883		868	26	0	11	98.3
2001	1,079	11	1,066	5	3		98.8
2002	956		933	29	6		97.6
2003	844		745	99	0		88.3
2004	1,006		948	58	0		94.3
2005	1,049		1,023	47	0	21	97.6
2006	976	21	890	65	0		91.2
2007	1,246		1,213	34	1		97.4
2008	1,100		1,035	65	0		94.1
2009	1,384		1,372	22	10		99.1
2010	1,454		1,412	49	4	3	97.1
2011	1,543	3	1,520	21	1		98.5
2012	1,278		1,196	84	1	1	93.6
2013	1,358		1,294	65	1	0	95.3
2014	1,546		1,590	24	24	44	102.8
2015	1,353	44	1,094	215	0		80.9
2016	1,364		1,299	74	9		95.2
2017	1,325		1,145	181	1		86.4
2018	1,590		1,521	74	5		95.7
2019	1,601		1,594	59	50	3	99.6
2020	1,423	3	1,340	99	6	13	94.1
2021	1,437	13	1,370	64	10	-	95.3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생산·수입량 합에 수출·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 - 19] 양파 도매 가격 동향 (연산기준: 4월 ~ 익년 3월)

단위: 원/kg

연산	상품	중품
2000	533	409
2001	326	245
2002	669	530
2003	864	731
2004	626	503
2005	597	479
2006	878	752
2007	447	385
2008	945	850
2009	712	625
2010	1,026	866
2011	654	519
2012	1,206	1,043
2013	1,022	915
2014	560	447
2015	1,313	1,166
2016	1,001	881
2017	1,087	937
2018	711	496
2019	697	610
2020	1,214	1,070
2021	726	734
2022	1,239	1,034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부표 11 - 20] 중국 양파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683	2,127	14,514
2001	739	2,090	15,452
2002	790	2,163	17,092
2003	820	2,216	18,180
2004	871	2,152	18,750
2005	922	2,143	19,759
2006	974	2,094	20,392
2007	1,026	2,084	21,378
2008	957	2,264	21,659
2009	976	2,248	21,935
2010	1,006	2,252	22,649
2011	1,041	2,208	22,988
2012	1,047	2,212	23,167
2013	1,053	2,213	23,289
2014	1,061	2,220	23,545
2015	1,098	2,227	24,449
2016	1,111	2,227	24,753
2017	1,121	2,231	25,009
2018	1,136	2,238	25,432
2019	1,122	2,232	25,048
2020	1,126	2,234	25,151
2021	1,128	2,234	25,200

자료: FAO

5.4. 2000~2022년 대파 수급 동향

[부표 11-21] 대파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톤

연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01	13,519	2,873	388,406
2002	13,331	2,842	378,849
2003	13,315	2,905	386,798
2004	16,346	2,992	489,136
2005	11,916	2,847	339,289
2006	13,707	2,926	401,029
2007	12,591	2,830	356,286
2008	12,821	2,870	367,936
2009	11,227	2,811	315,638
2010	11,161	2,735	305,289
2011	14,023	2,585	362,431
2012	9,466	2,596	245,757
2013	10,635	2,866	304,817
2014	11,286	3,015	340,229
2015	9,655	2,769	267,343
2016	10,396	3,001	312,009
2017	13,122	2,887	378,827
2018	12,115	2,838	343,869
2019	12,486	2,850	355,931
2020	10,883	2,901	314,685
2021	13,174	2,939	387,184
2022	10,550	3,405	359,228

주: 2022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 단수를 적용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22] 대파 수출 동향

단위: 톤

연도		총 수출량		
		신선대파	건조대파	냉동대파
2000	327	3	303	20
2001	353	3	182	168
2002	231	17	106	109
2003	115	5		110
2004	592	184	143	265
2005	204	94	49	61
2006	123	1	97	26
2007	26	1	14	11
2008	891	0	34	856
2009	127	6		121
2010	723	19	512	192
2011	181	1	161	19
2012	353	8	345	
2013	15	0	14	
2014	16	7	7	2
2015	22	22		
2016	3	2		1
2017	108	2	106	0
2018	15	1	14	
2019	65	1	64	
2020	11	9	1	1
2021	217	15	202	
2022	25	18	6	1

주: 신선대파 HS코드는 0703-90-9000(양파·쪽파·마늘·리크 외 기타 파속의 신선 또는 냉장채소), 0703-90-2000(선대파·쪽파), 건조대파 HS코드는 0712-90-2030(파), 냉동대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와 2022년은 신설된 HS코드 0710-80-9010(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함. 총수출량은 건조대파에 수출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표 11-23] 대파 수입 동향

단위: 톤

연도	총 수입량			
		신선대파	건조대파	냉동대파
2000	39,439	529	37,514	1,395
2001	48,754	363	44,952	3,439
2002	43,634	131	38,684	4,818
2003	47,303	3,293	41,112	2,898
2004	50,566	1,098	46,026	3,441
2005	45,266	101	41,126	4,040
2006	50,379	9,280	35,573	5,526
2007	49,073	2,395	40,427	6,251
2008	33,591	2,032	25,260	6,300
2009	30,222	28	23,743	6,450
2010	38,339	3,074	25,863	9,402
2011	51,384	16,943	26,406	8,035
2012	35,374	4,610	22,124	8,640
2013	42,995	8,374	25,402	9,219
2014	30,616	1,226	20,102	9,289
2015	33,250	3,700	19,442	10,109
2016	33,491	3,939	18,559	10,993
2017	38,776	8,383	17,434	12,958
2018	43,985	7,354	22,191	14,441
2019	32,499	5,632	13,614	13,253
2020	42,509	5,532	21,759	15,218
2021	44,811	8,272	20,686	15,854
2022	39,404	2,586	20,782	16,036

주: 신선대파 HS코드는 0703-90-9000(양파·쪽파·마늘·리크 외 기타 파속의 신선 또는 냉장채소), 0703-90-2000(선대파·쪽파), 건조대파 HS코드는 0712-90-2030(파), 냉동대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와 2022년은 신설된 HS코드 0710-80-9010(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함. 총수입량은 건조대파에 수출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표 11-24] 대파 공급 동향

단위: 톤, %

연도	총 공급량 (e=a+d)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d=b-c)	수입량 (b)	수출량 (c)	자급률 (a/e)
2001	436,808	388,406	48,402	48,754	353	88.8
2002	422,252	378,849	43,403	43,634	231	89.7
2003	433,986	386,798	47,188	47,303	115	89.1
2004	539,110	489,136	49,974	50,566	592	90.6
2005	384,351	339,289	45,062	45,266	204	88.2
2006	451,284	401,029	50,255	50,379	123	88.8
2007	405,333	356,286	49,047	49,073	26	87.9
2008	400,637	367,936	32,701	33,591	891	91.6
2009	345,733	315,638	30,095	30,222	127	91.3
2010	342,906	305,289	37,617	38,339	723	88.8
2011	413,634	362,431	51,203	51,384	181	87.6
2012	280,778	245,757	35,021	35,374	353	87.4
2013	347,798	304,817	42,981	42,995	15	87.6
2014	370,829	340,229	30,600	30,616	16	91.7
2015	300,571	267,343	33,228	33,250	22	88.9
2016	345,497	312,009	33,488	33,491	3	90.3
2017	417,494	378,827	38,667	38,776	108	90.7
2018	387,840	343,869	43,971	43,985	15	88.7
2019	388,413	355,931	32,482	32,547	65	91.6
2020	357,183	314,685	42,498	42,509	11	88.1
2021	431,778	387,184	44,594	44,811	217	89.7
2022	398,607	359,228	39,379	39,404	25	90.1

주 1) 2022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수출입 물량중 건조대파는 신선대파로 환산(수율 0.07% 적용)한 수치

3)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관측센터

[부표 11 - 25] 대파 도매 가격 동향

단위: 원/kg

연도	상품	중품
2001	779	619
2002	852	654
2003	1,438	1,194
2004	930	769
2005	1,002	852
2006	1,225	1,059
2007	1,040	883
2008	954	811
2009	1,111	951
2010	2,010	1,732
2011	1,293	1,091
2012	1,733	1,469
2013	1,479	1,275
2014	975	814
2015	1,685	1,436
2016	1,972	1,653
2017	1,700	1,394
2018	1,676	1,360
2019	1,365	1,097
2020	1,731	1,442
2021	2,367	2,076
2022	1,818	1,594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부표 11-26] 중국 대파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리크 (Leeks)	골파 (Onions, shallots, green)
		리크 (Leeks)	골파 (Onions, shallots, green)			
2001	22	4	19	515	85	430
2002	23	4	19	643	96	548
2003	24	4	20	749	105	644
2004	24	4	21	816	112	704
2005	25	4	21	812	107	704
2006	27	5	23	918	125	794
2007	29	5	24	936	126	810
2008	30	5	25	963	127	836
2009	32	5	27	1,023	135	888
2010	31	5	26	1,042	141	901
2011	31	5	26	1,072	149	924
2012	31	5	26	1,074	152	922
2013	32	5	26	1,091	153	938
2014	32	6	27	1,108	156	951
2015	34	6	28	1,166	158	1,008
2016	33	5	27	1,105	140	965
2017	33	6	27	1,121	142	979
2018	34	6	28	1,141	144	998
2019	33	6	27	1,116	143	972
2020	32	6	27	1,115	142	973
2021	33	6	27	1,119	141	978

자료: FAO